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오전 7시 되기 전부터 기다려 투표"

19대 대선 보스톤 재외선거 25일부터 시작
'소중한 한 표' 행사 젊은층 눈에 띄게 많아
국외부재자 신분증, 재외선거인 영주권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 재외선거가 2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보스톤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는 투표시작 시간인 25일 오전 8시 전부터 보스톤 거주 재외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마감은 30일 일요일 오후 5시다.

25일 보스톤 총영사관 관할지역 첫 투표자는 손영익(33, 하버드대학원) 씨였다. 손 씨는 오전 7시가 채 되기 전에 도착, 1시간을 넘겨 기다려 투표했다. 손 씨는 "이번 대선에서 간절하게 당선되길 바라는 후보가 있어서 그 후보에게 보스톤에서 첫 번째로 투표하면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고 말했다.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내외는 25일

오전 9시까지 함께 투표했으며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JBTC의) 25일 TV토론을 인상 깊게 지켜봤다. 후보자들이 여유도 있고 유머를 나누며 토론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 밝혔다.

이날 투표소에는 젊은층이 대부분이었으며 어린아이들 동반하고 가족들의 방문도 많았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김영희 씨는 "투표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5명인줄 알았는데 후보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고 밝혔다.

웨스트보로에 거주하고 보스톤소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전종경 씨는 "지난해 총선에는 유권자 등록시기를 놓쳐 투표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놓치지 않" >>2면으로 계속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4월 25일 재외선거 첫날 보스톤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 유순택 여사와 투표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물 구입

입지좋은 크랜스턴 파크애비뉴 건물
건물 구입가격 \$205,000 비교적 저렴
5월 31일 건물구입절차 마무리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보스톤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인회관 건물 구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인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난해 가을부터 건물 물색에 나섰으며 크랜스턴(Cranston) 소재 파크 애비뉴에 있는 건물로 결정하고 현재 구입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물건립위원회는 "그동안 모금한 금액과 입지조건이 편리한 장소를 위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논하여 크랜스턴의 파크 애비뉴(Park Ave)에 있는 단독 건물로 결정하였다" 고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정확한 주소는 아직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밝히지 않았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후보 건물은 현재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구입가가 \$205,000이다. 한인회는 이 건물을 회관 및 문화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건립위 측은 "지난 1월에 크랜스턴시에서 영구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항공권 \$869~

한국행 항공권 포함가! (항공료 제외)
도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홍콩,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편하는 항공료도 캐시/카드/체크 가능!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대표원장
Dr. Chang Yoon, DPT
브룩라인(하나병원) 원장
Dr. Miran Kwon, DPT

교통사고/학생보험/닥터노트/여행자보험
울스톤 크리닉
617.731.1001
브룩라인 크리닉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반기문 전 총장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투표

투표 후 반 전 총장 “역사적인 순간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 교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72)이 4월 25일 재외선거 첫 날 뉴튼 소재 보스톤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1월 12일(한국시간)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 약 3주간의 후보활동을 벌이다 2월 1일(한국시간) 갑작스레 불출마 선언했다. 반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재직시 가장 많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으나 한국 귀국 후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렸었다.

반 전 총장은 부인 유순택 여사와 투표한 후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고 밝히고 “내가 옛날에 학교(하버드 케네디스쿨)다닐 때는 보스톤 총영사관이 없었다” 며 과거를 회상했다. 반 전 총장은 보스톤 총영사관 남궁연 선관위위원장에게 몇 명이나 등록했는지 투표 상황을 물었고 남궁연 선관위장은 3,300여명이 등록했다고 답했다.

반 전 총장은 대선후보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반 총장 대선 후보 당시 캠프 인물들



반 전총장이 투표지를 받고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자원봉사자 및 선거 관계자들과 일일이 사진촬영에 응대했으며 12시 8분 총영사관 문을 나섰다

이 대거 안철수 후보 캠프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 내외는 25일 11시 37분께 보스톤 총영사관에 도착해 엄성준 총영사 내외의 환대를 받았다. 자원봉사자 및 안내원들 모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한국에서 등록한 서류를 내보

이고 투표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반 전 총장은 11시 47분께 엄 총영사 내외와 환담을 나누는 후 자원봉사자 및 선거 관계자들과 일일이 사진촬영에 응대했으며 12시 8분 총영사관 문을 나섰다.

editor@bostonkorea.com

“오전 7시 되기 전부터 기다려 투표”

▶▶1면에 이어서

고 한 표를 행사했다” 고 밝혔다.

한 대학생은 “JBTC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은 모두가 심상정 후보로 갈아탔다” 고 밝혀 한국의 TV토론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 후보의 지지를 바꾸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투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한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인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아 선거 참여를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영주권을 지참해야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의 재외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선관위의 안내문에는 영주권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한국의 여권을 들고 왔던 것이 화근이었다.

보스톤 총영사관에는 보스톤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영사관이 입주한 300 케이트웨이 빌딩 앞에서부터 유권자들을 안내했으며 보스톤 총영사관은 투표자들을 위한 주차권을 발부해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editor@bostonkorea.com



25일 재외선거 첫날 7시 전부터 와서 기다렸다 첫번째로 투표한 손영익 씨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사진으로 보는 19대 대선 보스턴 재외선거 이모저모

대선 재외국민 조기 투표 30일 5시 마감



25일 시작한 재외국민 선거에 젊은층의 가족단위 투표자들이 많았다. 사진은 천서희씨 가족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 내외가 25일 재외선거 첫 날 오전 9시에 투표했다



25일 9시에 투표하고 있는 남궁연 보스턴재외선거 관리위원장 및 윤미자 재외선거관리 부위원장



보스턴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영사관이 입주한 300 케이트웨이 빌딩 앞에서부터 유권자들을 안내했다



25일 재외선거 첫날 7시 전부터 와서 기다렸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대한민국을 향후 5년동안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19대 대선 재외국민 조기 투표가 4월 25일 화요일부터 4월 30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튼소재 보스턴총영사관에서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까지이며 학생 및 단기체류자 등 국외 부재자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은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또는 미국당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를 지참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등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이 없는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다른 서류를 첨부해 제출)를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확인 뒤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봉투를 봉합하는 곳에서 반드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투표함에 봉투를 넣어야 한다.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JULY 10 - JULY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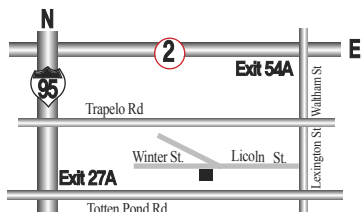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물 구입 마무리 예정

▶▶1면에 이어서

히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다” 고 밝히고 5월 31일 건물 구입을 마무리하면 2-3주 수리기간을 거쳐 6월 24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스톤 한인회관에 이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물 구입에도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동포재단 김영근이사과 이상학 과장은 4월 10일 해당 건물을 보고 로드아일랜드 건립위원회의 구입절차를 브리핑 받았다. 재외동포재단은 \$50,800을 지원했다. 정부는 2010년 보스톤 한인회관 건물구입 당시에도 \$50,000을 지원했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1981년 한인회관 건립기금 정관을 설정하고 모금액 \$1,000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2011



이동수 로드아일랜드 건물위원회 위원장

년에는 건물건립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실시해 현재까지 \$170,000을 모금했다. 특히 그리고 RI 경제인 협회 (\$5,000)와 RI한인학교 (\$5,000)도 큰 도움을 건넸다.

한편 건물건립위원회측은 한국학교

와 공동으로 건물을 구입하려 했었지만 학교 건물용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제와 시스템을 요구해 결국 학교로의 사용용도는 포기했다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건물건립위원회는 이동수 위원장을 필두로 박근찬, 조원경, 모니카 리, 이종민, 지상욱, 조봉섭 씨 등 7명이 맡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의 소속에 대한 질문에 이동수 위원장은 “저희는 건물(건립)위원회가 한인회 소속이다. 한인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건물 위원장은 금전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고 모금과 건물 물색에 관여할 뿐이다” 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이 위원장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를 선정해서 할 것이다” 라며 “다른 한인회관 사례를 연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를 구성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자세한 모금내역과 건물수리 지출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인회는 한인회 예산 및 지출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오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왼쪽부터) 윤광옥, 이동수, 이상학 동포재단 과장, 모니카 리, 권성환, 조원경, 김영근 동포재단 이사, 조봉섭, 권성환 부총영사

보스톤산악회 봄 정기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4월 24일 토요일 뉴햄프셔 워터발밸리 소재 웰치엔디 키 루프 (Mt. Welch&Dicky Loop / 약 2700ft)으로 정기산행을 나간다.

이번 왕복 산행 거리는 4.5마일이며 산행시간은 약 3.5-4시간이다. 난이도는 3으로 보통이다.

봄산행이지만 여전히 해빙되지 않아 준비물은 트레킹 폴스, 아이젠 (Microspikes 또는 Crampons)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배낭, 등산화착용,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고글, 스틱, 식수, 간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집결지는 울스턴 공영주차장(오전 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7시 15분)으로 선택

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이날 시간 계획은 9시 30분 트레일입구에 도착해 9시 45분에 산행을 시작한다. 12시 30분 정상에 도착해 중식을 하고 1시에 하산을 시작한다. 오후 3시 하산을 완료한 후 오후 5시에 샬럼 주차장에 도착한다는 계획이다.

산행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A,B,C중 원하는 조와, 집결지 선택(Allston or Exit 2) 차량운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연락 전화를 남겨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978-569-3256(김상호)로 할 수 있다. 날씨 관계로 산행지 변경 및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5월 한미 노인회 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5월 3일 첫째 수요일 사랑방, 5월 17일 셋째 수요일 사랑방 모임때 건강세미나가 개최된다.

주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과 치매 예방

참여대상: 누구나 참석가능

(사랑방 셋째주 수요일 건강 강좌 있음)

5월 29일 10시 메모리얼데이 행사가 준비되어있다. 참가자들은 한복, 북, 장구를 준비하고 엔도버에 9시 30분까지 도착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행사기간 5월 21일까지

가정의달 사랑 이벤트

천녹삼 구매시
홍삼정 30g & 천녹삼 30g 무료증정

홍천웅, 화애락, 톤골드, 톤마일드
홍이장군 1~4단계, 아이패스

10% OFF
동인비 전제품

구입시
에브리타임 10포 증정 \$35 상당
OR
홍삼정 30g 증정

에브리타임 10포
or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주문후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달라스 미주한인체육대회 관심 가져달라”

보스톤 체육회 이학재 회장 인터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17년 미주한인체육대회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달라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2월 보스톤체육회의 회장직을 인수인계 받은 이학재 회장(45)은 달라스 대회 보스톤 대표팀을 꾸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보스톤의 상당수 단체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 없이 빈손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보스톤체육회를 운영할 기금도 2주전 태권도 대회를 통해 일부 마련해 본격적인 보스톤 대표팀 구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올해 보스톤체육회 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참가 자체다. 미주한인체육회는 보스톤체육회의 참가부진을 이유로 제명까지 고려했다는 후문이 있기에 참가만으로도 보스톤의 존재를 알리는데 기여하게 된다.

출발은 그리 나쁘지 않다. 현재까지 출전 종목은 골프, 야구, 탁구, 태권도 4개 종목이 확정됐고 참여인원은 약 25명정도다. 보스톤 체육회는 미주체육회에 명단을 제출해야하는 관계로 5월 중순까지 계속 출전선수

를 모집중이다. 이학재 회장은 “다른 종목의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출전을 원하는 한인들은 꼭 보스톤체육회(617-852-0400)에 참가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체육회는 참가자들에게 호텔 숙박비를 제공한다. 또한 “선수단 격려 차원의 뒷풀이 비용 등도 협회에서 감당한다” 는게 이 회장의 말이다. 대회 기간중 식사는 미주한인체육회에서 제공하게 된다. 참가하는 선수들은 달라스행 비행기표 비용과 선수등록비를 부담하게 된다.

보스톤체육회 이 회장은 4월말부터는 한인 업체들과 기관단체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한마루, 본촌, 웨스트보로 한인식당 등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영사관에서도 체육대회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한인회도 회장이 공백인 상태라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다른 단체와 연락취하고 있는데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 말했다.



6월 미주한인체육대회 보스톤대표팀 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학재 보스톤체육회장이 4월 26일 보스톤코리아를 방문해 한인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특히 어느 한 단체를 찾아갔는데 연세가 지긋한 어른 분이 “회장이 돈을 써야 한다” 라고 말해 “회장은 돈내고 감투쓰는 것 밖에 안되는 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고 밝혔다. 물론 이번 체육대회의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이면 회장이 감당해야 한다는 각오는 되어 있다.

보스톤체육회 이학재 회장은 “아주 작은 단체다. 활성화 위해서는 보스톤 지역 체육인들도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 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이번 대회 보스톤 대표단 단장을 맡아 주실 분을 절실히 찾고 있다” 고 말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정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국악과 서양음악의 만남은 계속된다

한국 음악 저변 확대한 텡스 대학교 작곡 발표 및 국악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한국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스톤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작곡가 이은영 보스톤 콘서버토리 교수의 지도하에 텡스(Tufts)대 학생들은 가야금과 서양 악기의 앙상블을 위해 작곡된 곡을 발표했고 한국의 국악 전문 연주인들의 무대도 이어졌다.

4월 20일 텡스 대학교 그라노프 뮤직 센터에서 열린 <뮤직 올드 앤 뉴(Music Old and New)콘서트>는 한국의 전통음악,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앙상블, 그리고 전통 무용이 어우러져 보스톤에서 한국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1부 하이라이트는 텡스대 9명 학생들의 작곡 발표였다. 학생들은 독특한 개성이 담긴 작품에는 농현이나 가야금의 특수한 연주기법을 잘 소화한 작품들도 있어 한인 관객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이은영 교수는 생소한 한국 악기를 위한 곡을 쓰느라 새로운 것을 듣고 배

우며 노력한 학생들의 용기와 순수함에 많은 칭찬을 보냈다. 학생들의 신곡 연주는 2015년 뉴욕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가야금 명인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송은씨가 맡았다.

2부 순서는 2010년 연정 국악경연대회 및 동아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한 박민지 씨의 <거문고 산조> 연주에 이어 안숙선 선생을 사사한 오정희 씨의 가야금 병창 <심정가>는 한국적인 창법으로 관중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창에 대해 영어 자막과 줄거리 설명을 통해 영어권 관중의 이해를 도왔다.

신송은 씨는 25현 가야금으로 <도라지 변주곡>을, 오정희 씨와 박민지 씨는 가야금과 거문고로 <아리랑 연곡>을 연주하였다. 마지막 순서는 팽가리, 징, 장구 등의 반주가 함께 한 신명나는 <진도 북춤>으로 마무리 되었다.

텡스 대학교 음악과장인 데이비드 로크(David Locke)교수는 “(1부에서 선보였던 뉴저지 소재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의 강은주 원장의) 태평무가 이제까지 디스틀러 콘서트 홀에

서 내가 보았던 어떤 공연보다도 아름다웠다” 고 말하고 “거문고과 가야금의 듀엣도 특히 인상 깊었다” 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곡 중에서도 마음에 남는 작품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전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 이은영 교수에게 감사하였다. 버클리 음대의 작곡과 과장인 리처드 캐릭(Richard Carrick)교수도 100여 명의 청중들과 함께 끝까지 콘서트를 관람하고 음악회를 축하해 주었다.

2014년부터 보스톤 콘서버토리에서 작곡과 작곡 세미나를 가르쳤으며 이번 콘서트를 주관한 이은영 교수는 “텡스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음악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 말했다. 또 2부 순서를 후원해 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 씨가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체이스 모린(Chase Morrin)과 함께 가야금과 피아노 듀엣 앨범인 <크록(Croak)>을 발표한다

가야금과 피아노 듀오 그룹 <가피>

음반 발매 위한 기금 모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국악인 최초로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즉흥 연주과에 입학하여 가야금과 한국 음악을 알리며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 씨가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체이스 모린(Chase Morrin)과 함께 가야금과 피아노 듀엣 앨범인 <크록(Croak)>을 발표한다.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약 2년 동안 함께 작업하며 결성된 이들의 팀 이름은 가피(Gapi)로 가야금과 피아노의 첫 음절을 결합한 것인데, 두 악기가 동등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개척하려는 그들의 고민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보스톤 미술관의 설날 행사, KKM 프로젝트의 한국음악 공연 등 보스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공연을 해왔으며, 텍사스

휴스턴의 한국 페스티벌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 내 타지역에서도 활동해 왔다. 이번 여름에는 새 앨범에 수록된 곡을 공연하며 한국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가피의 앨범 <크록>에 담긴 모든 곡은 김도연과 체이스 모린의 자작곡이며, 국악과 재즈의 특색이 결합된 ‘코리언 코스모폴리탄 사운드(Korean Cosmopolitan Sound)’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음악이 될 것이다.

김도연 씨는 “앨범의 발매를 위한 온라인 기금 모금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crowdrise.com/gapi-recording-project/fundraiser, 전화 문의: 857-207-7041 이메일 : doyeonk1991@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화가 제영신씨 개인 전 "인-비트윈"

보스톤 갤러리 갤러리 5월 3일부터 28일까지 전시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대상화를 마네킨으로 표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작품속에 독특하게 마네킨을 등장시켜 현대인들의 단절과 소통 부족을 표현하는 화가 제영신 씨가 5월 3일부터 28일까지 보스톤 소재 갤러리 갤러리(Galatea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연다. 오프닝 리셉션은 5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렉싱턴 매스 애비뉴에 화실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 제영신 씨는 2011년 이탈리아에서 개인전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보스톤, 뉴욕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6월 뉴욕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올해는 보스톤에서 다시 개인전을 개최한다. 개인전에서 대부분의 작품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전언이다.

제영신 씨는 작품 웹사이트에서 “작품 활동이 미국, 유럽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외국인으로서 살면서 느꼈던

소외감을 표현한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그들의 언어를 모르고 그들 또한 제 씨의 언어를 몰랐을 때 자신이 대상화되고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꼈던 것이 작품에 표현되어 있다.

제 씨는 “미국에서 나는 내 자신이 마네킨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표현했다. “마네킨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소외된 세상에 무력하게 갇힌 모습을 묘사했다” 는 제 씨의 표현이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덧칠해져 있다.

알링톤 지역신문 알링톤 애드버킷에 따르면 제 씨의 작품은 호퍼(Hopper)의 작품처럼 “고독, 외로움, 후회, 권태 그리고 체념의 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 고 보도했다.

제영신 화가는 2월 케임브리지아트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예술가상” 을 받았고 아티스트 워킹 (Artist's

Working)이라는 미술잡지는 작품방범론에 대한 대담을 게재기도 했다. 물론 소재 MATV 방송사내 갤러리에서 개인전도 가졌다. 물론 MATV는 15분 짜리 특집물을 보도기도 했다.

제 씨의 작품은 렉싱턴 도서관에도 전시되어 있다. 제 씨는 렉싱턴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통해 29일, 30일(토, 일 오전11-5시) 작업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제 씨는 뉴햄프셔대(학사)와 브랜다이스(석사)를 졸업했다. 한국에서는 소설가로도 등단했으나 이후 화가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재원이다.

전시제목: "In - Between"
Opening Reception: 5/5, 6-8pm
기간: 5/3- 5/28, 2017
장소: Galatea Gallery
460 Harrison Ave. Boston, MA
gallery hours; Wed. ~ Sun; 11am - 6pm

editor@bostonkorea.com



미독립전쟁 시발점인 렉싱턴 전투로 유서 깊은 렉싱턴 패트리어츠데이 퍼레이드에 최초 한국인들의 모임인 코렉스(KOLex)가 참가했다

렉싱턴 패트리어츠 데이 한인 참여 호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독립전쟁 시발점인 렉싱턴 전투로 유서 깊은 렉싱턴 패트리어츠 데이 퍼레이드에 최초 한국인들의 모임인 코렉스(KOLex)가 참가했다.

약 50여명의 한인가족들은 한복과 태권도복 등을 차려입고 코렉스 로고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퍼레이드에 합류했다.

이날 퍼레이드 참여한 김영희 씨는 “한인들의 첫 참여에 대해 미국인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참가했던

가족들도 모두 만족했던 행사였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와 보스톤 총영사관이 의상과 사물놀이 악기를 지원했다.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 교회에서도 많은 신도들이 함께 참여했다.

코렉스 (KOLex)는 ‘Korean Organization of Lexington’ 의 준말로 2년정도 활동한 단체다. 렉싱턴 타운과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위한 도움체 역할을 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입시경쟁에 빠진 아시안 쌍둥이 자매의 사랑

연극 피어리스의 작가 박지혜 인터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컴퍼니원 극단이 코플리 스퀘어에 있는 보스톤 공립 도서관에서 4월 27일부터 한달간 한인 2세 박지혜 작가의 '피어리스 (Peerless)' 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보스톤시와 보스톤공립도서관의 후원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5월 6일 (토) 2시 공연에는 박 작가가 직접 관람하며 공연 후에 작가와의 대화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컴퍼니원 극단의 헤일리 프루크양이 박지혜 작가와 최근 대담을 했다.

‘피어리스’ 를 어떻게 쓰게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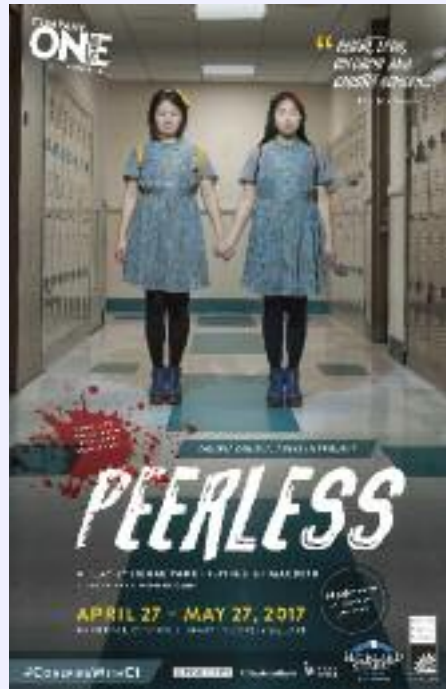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삼주 동안 진전 없이 딱 막혀 있었다. 그래서 데이비드 아카데미 희곡작가가 충고한대로 며칠동안 그 프로젝트를 완전 잊어 버렸다. 그렇게 며칠 쉬고 난 어느날 저녁 9시쯤에 침대에 앉아 있는데 영감이 떠올랐다. 스코틀랜드 희곡에서 영감을 받은 아시안계 쌍둥이 고등학생 얘기가.

당장 책상에 앉아서 첫 장면에 나오는 쌍둥이의 대화를 15분만에 써내려 갔다. 일주일 동안 매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미친듯이 써나갔다. 전체 희곡의 반 이상을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 부분들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희곡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니까 더 진행이 안되었다. 여름 끝나는 무렵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장면들을 죽 나열해 보면서 어떻게 끝맺을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피어리스에서는 대학 입학 경쟁이 주인공인 L과 M의 모든 면을 사로 잡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압박감을 본인도 경험했나?

나는 마그넷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수학/과학/전산학 잘하기로 알려진 학교였다. 이 학교에

서 대개 세명이 하바드 대학 들어 간다. 그래서 누가 하바드 대학에 갈지 모두다 알고 지낸다. 나는 분명히 그 세명 중 한명이 아니어서, 오히려 “최고” 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압박을 덜 받았다. 어느 대학으로 갈지는 몰랐지만, 대학이 장래를 크게 좌우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자기 원하는 “좋은 아이비 대학” 에 입학이 안돼서 좌절하는 친구들이 개인적인 타격을 받는 것을 옆에서 봐서 이 연극에 반영됐다. 또 20세 초반 뉴욕에서 개인교사를 상당히 했는데, 입학 준비가 점점 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경쟁



적이 되어 가는지, 수많은 개인교사, 코치와 전문상담자들을 동원하는지 직접 보고 느꼈다.

맥베스에서 시작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침투되어 고정된 가치관에 대해 어떤 질

문을 던지고 있나?

극소수만 일류 대학에 입학한다는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어떤 부류에서 한명씩” 밖에 못 들어 간다는 위험한 생각들을 불러 일으킨다. ‘피어리스’ 에서 L과 M이 아무 것이나 잘 받아 들이는 D에게 하듯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다른 사람을 그저 경쟁자로 보기가 너무 쉽다. 한발짝 물러나서 소수의 경쟁자만 만들어 놓은 사회 전체적인 구조를 되돌아 볼 시간과 공간도 없이 어린 나이부터 가치관이 굳어 버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시작 부분이 충격적이다. 이런 시도가 맥베스에서처럼 미술과 초자연적인 것을 찾아 보게 하는 것인가?

10대 때에는 전혀 통제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보였다. 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거대한 그런 것들 말이다. 모두들 떨어질 (연극에서 광 소리내며 실제로 떨어지는) 입학통지서를 4월 15일 전후로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속수무책인 기분이었다. 세상이 신비스럽기만 하고 갈피를 못잡을 때에 미술을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보스톤 시정부와 보스톤 공립 도서관과 같이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더 많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료없이 기부만을 받기로 했는데, 작가로서 이런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좋다. 특히 젊은 층이 무리없이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빨리 돌아가는 현대 생활에 익숙한 관객이 유머 감각과 빠른 진행에 맞고, 그런 관객들이 연극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전국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공연하다 보면, 무대에 연기자의 인종이나 부유함이 관객들과 아주 다를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관객이 “같이 대화”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쳐다보는” 분위기가 된다. 불행하게도



한인 2세 박지혜 작가

그런 상황이 많은 극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극장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내게 된다.

지난 한해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 지금 진행 중인 일은?

‘해나와 무시무시한 정자 (Hannah and Dreadful Gazebo)’ 가 오레곤 주 셰익스피어 축제에 방금 시연되는 것을 보고, 막 동부로 돌아 왔다. 지금 무대 디자이너 트리스탄 제퍼즈와 ‘자, 여기에 왔어요 (Here We Are Here)’ 로 임시 제목을 정한 희곡에 전념하려고 한다. 디자이너와 감독은 주로 공연 전에야 작가와 상의를 시작하는데, 이번엔 작품 초기부터 무대 디자이너와 함께 의논하는 시도를 한다. 경제적 면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데, 희곡의 디자인 부분이 부각되면서 글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나는 원래 오랫동안 배우로 지냈는데, 지금은 연기를 거의 안한다.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숙면 (Sleep)’ 을 나오미 리루카가 각본한 극에 출연할 수 있어서 들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5 Stars Reviews
> 저렴한 Tuiti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강사 :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한국어 문자 가능)
781.729.8868

SHALOM DENTISTRY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BU 특별한 강의, 짜장면도 먹고 강의도 듣고

무료 짜장면 이벤트에 북한문제 강의 곁들여 학생들 호평
이유탉 교수, 통일 이뤄지면 안 돼, 젊은 세대 관심 독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짜장면을 먹으면서 강의를 듣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강의가 보스톤대학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교수와의 장벽을 허물면서 자칫 따분할 수 있는 북한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북한 인권 단체인 LiNK(Liberty in North Korea, 이하 링크)의 보스톤대학(이하 BU) 지부는 21일 무료 짜장면 이벤트를 준비했다. 싱글들이 짜장면을 먹는데서 유쾌한 블랙데이를 기념해 매년 4월마다 무료로 짜장면을 제공해 왔던 링크는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조금은 어렵고 지루할 것 같은 북한 문제를 학생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으며 이야기 해 보자는 것이었다.

링크의 요청에 도움을 준 것은 이유탉 BU 경영대학 교수였다. 그는 40여명의 BU대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독일의 사례, 그리고 통일에 앞서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에 대해 국가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강의에서 “지금 살고 있



이날 특별 강연자로 참여한 BU의 이유탉 경영대학 교수는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와 바람직한 리더에 대해 강연했다

는 세대가 지나가면 통일에 대한 당위성도 목적의식도 희박해 질 것”이라며 “지금 살고있는 세대에서 통일의 과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여러분(학생)의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참신하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극복하지 못한 이념적 장벽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 관심을 가지고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을 이끄는 제대로 된 리더의 유무도 중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이 교수

의 꿈이나 비전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대통령의 정치관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짜장면을 먹는 특별한 경험을 한 BU 학생들은 대체로 이번 이벤트에 만족해했다. 참가자인 세린 황 씨(커뮤니케이션 학)는 “교수님 면전에서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으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신기한 경험이었다”며 웃음 지었다. 황씨는 “언론을 통해서도 북한이나 한국의 정치상황을 듣지만 이렇게 남북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현지인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상황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링크 BU지부의 홍수는 회장은 학생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이와같은 행사를 준비했다. 홍 회장은 “북한 문제를 이야기 한다고 하면 보통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경향이 많지만 최근에는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남한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평소와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링크 BU지부는 지난 2월에도 학내에서 런닝맨 이벤트를 개최하며 탈북자 관련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소리안과 버클리 음대 한인 학생 밴드 총 20여 명은 3개월간 갈고 닦은 실력을 1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선보였다

소리안 정기공연 올해도 성황

BU 한인 음악동아리 ‘소리안’ 버클리 밴드와 협연
라디오 음악방송 콘셉트, 세월호 3주기 영상도 호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한국의 가요를 라이브 연주로 공연하는 실력과 보컬 동아리 소리안(Sorian)의 정기공연이 올해도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언제나 특색 있는 테마로 공연을 준비해 온 소리안의 이번 테마는 라디오 음악 방송이었다.

소리안은 21일 저녁 7시 30분 보스톤대학 (이하 BU)의 조지 셔먼 유니온(GSU) 2층 강당에서 100여명의 관객이 입장한 가운데 1시간 30분간의 정기공연을 가졌다.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로 인기를 모았던 이문세의 ‘소녀’로 포문을 연 소리안은 ‘첫사랑이죠(나윤권, 아이유)’, ‘아마도 그건(최용준)’, ‘씨스루(프라이머리)’ 등 12곡의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어느 때보다 관객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공연이었다. 3달 전부터 공연을 준비하면서 라디오 음악 방송으로 콘셉트를 잡은 소리안은 BU와 소리안의 팬들로부터 사연과 신청곡을 접수받았다. 특히 공연에 앞서 세월호 참사 3주기였던 4월 16일에 맞춰 제작한 추모 영상은 좋은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로부터

사연을 모으며 추모곡 신청을 받은 소리안은 ‘컴백홈(Come Back Home, 원곡 투에니원)’을 직접 불러 공연 1주일 전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보컬과 행사 진행을 맡은 소리안 멤버 14명과 밴드 연주를 맡은 버클리음대학생 4명이 1월 말부터 약 3달간 준비해 왔다. 올해 처음으로 소리안과의 협연에 참여한 버클리음대의 데이브 리(전자음악 전공) 총괄 프로듀서와 김민성(작곡, 프로듀싱 전공) 공동 프로듀서는 “음악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분들 임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열정이 대단했다”며 “덕분에 우리 멤버들도 좋은 영감을 받았다”고 평했다.

소리안의 줄리아 박 회장(CFA'17)은 “이번 공연은 라디오 방송 사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관객분들의 참여가 필요했는데 관객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3달동안 준비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소리안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호응 부탁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이날 LiNK(회장 홍수는, 사진 왼쪽)의 행사에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무료로 짜장면을 즐겼다

오늘 반찬

Today Banchan

메뉴 (1회 \$100)
5/3(수), 5/6(토)

- 감자탕 1/2 Gallon
- 된장찌개 32oz 2통
- 감밥 2줄
- 닭갈비 24oz
- 숙주나물 16oz
- 오뎅볶음 16oz
- 깍두기 16oz

(알려지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100% 보장

신선한 재료
NO MSG
배달 당일 요리
(김치, 젓갈 등 저장음식 제외)

주문

배달 전일 저녁 8시까지 주문 접수
배송은 수, 토요일 밤 6-9시 사이
이메일: todaybanchan@gmail.com

TEL: 857.998.9172
Kakao: todaybanchan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 어린이 건강 순위 미국에서 TOP 2

백신 접종, 보험 가입 등에서 좋은 평가 받아
의료 비용 비싸고 어린이 신체 활동 적은 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한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월렛허브(WalletHub)에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비용 대비 어린이를 위한 의료 환경의 수준, 어린이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국 전체 주의 순위를 매겨 발표했다.

월렛허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28가지 항목을 분석했다. 연방 센서스 자료와 연방 노동국의 통계 자료,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어떤 주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의 건강과 의료 환경이 좋은지를 따져보았다.

매사추세츠 주는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 비율(78.5%)이 높고 보험 미가입 어린이 비율(1.5%)은 낮았다. 또한 주 정부가 어린이를 위한 구강 건강 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대비 치과 의사의 수(인구 10만명 당 47.87명)가 많았다. 이런 요인 덕분에 매사

추세츠 주는 어린이 건강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할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 주보다 종합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주는 버몬트가 유일하다. 버몬트는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 신체 활동량, 비만도 등의 항목에서 매사추세츠 주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매사추세츠 주는 많은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의료 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소아과를 한 번 방문할 때

발생하는 평균 비용은 178.50달러로 미국 어떤 주보다도 높았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도 미국 다른 주보다 많은 편이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인구 10만명 당 75.76개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으며, 다른 41개 주는 이보다 적은 수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의 어린이들은 더 많은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6세에서 17세 사이의 매사추세츠 주 어린이들 중에서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몸을 움직여 놀거나 운동을 하는 비율은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의 10세에서 17세 사이 아동 16.1%가 과체중이다.

jsi@bostonkorea.com



패트리엇의 풋볼 스타였던 아론 헤르난데즈는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 복역 중 자살했다

자살한 헤르난데즈 유산 두고 법정 공방 예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패트리엇의 풋볼 스타였던 아론 헤르난데즈가 감옥에서 자살한 이후, 그가 남기고 간 돈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헤르난데즈는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돈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헤르난데즈는 2012년 8월에 패트리엇과 5년-4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2013년 6월에 살인죄로 체포되기 전까지 헤르난데즈가 받은 돈은 약 1천만 달러다.

헤르난데즈가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현재 얼마의 금

액이 남아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헤르난데즈가 소유했던 애틀보로 소재 집은 130만 달러에 1년째 매물로 나와 있다.

헤르난데즈는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중 1명의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3명의 피해자 가족 모두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 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상담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피보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yinsurance.com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오바마케어 또 위기 극보수의원 신건강보험 찬성

공식 지지선언...하원 통과해도 상원 관문 남아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기를 발목잡았던 공화당 강경보수와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오바마케어 폐기는 이제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여전히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건강보험료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원에서 이 법안을 더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2주 동안 프리덤 코커스 의장 마크 매도스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과 중도와 '투스데이 그룹'의 톰 맥아서 (뉴저지),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기 및 그 대체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수정안은 건강보험에 대한 주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보험자의 보장 수준을 높이거나 보험사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

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주정부에 한해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질병자들에게 대한 오바마케어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오바마케어에서 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최저 보험금을 지정한 부분을 주정부가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결 직전 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엔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도와 찰리 덴트 하원의원은 "이제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다해도 상원 문턱이 남아 있다. 상원에선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폐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대 48로 간신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60표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yjyj@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민국 '불체자 범죄 피해자' 지원부서 신설

불체자 범죄 피해가족 '핫라인'으로 지원 국토안보장관 "이민자 범죄 피해자, 괄시 받았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 가족들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신설 부서의 이름은 이민자범죄피해자지원(VoICE)이다. 불법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관세청(ICE) 내 자리 잡았으며 불법 이민자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voice)가 되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모든 범죄는 끔찍하지만 이들 피해자들은 그동안 괄시 받아 왔기에 특별하다"고 말했다. 켈리 장관은 "이런 범죄로 인한 희생은 처음부터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며 "가해자들은 애당초 이 국가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ICE 관계자들은 VoICE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핫라인을 제공하고 21명의 인종관계 전문관료와 27명의 범죄피해자 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이는 주별로 있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는 역할이 다르다. VoICE는 범죄 용의자의 이민체계와 관련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달리 주 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이 어렵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현존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에서 자원이 할당된다고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이라는 바람직한 취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평론가들은 이번 신설 부서가 "미국인보다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인구를 불공정하게 겨냥했다"고 꼬집었다.

WP는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미국에 있는 인구의 7%가 비시민권자인데 반해 주·연방수감자의 비시민권자 비율은 5%라고 전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혐오범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서명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서 이 부서의 설치를 요구했다. icef08@news1.kr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의장 마크 매도스 하원의원이 26일 미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MR. SUSHI ARLINGTON



781.643.4175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BUSINESS HOURS

Monday	11:30AM - 10:00PM
Tuesday	11:30AM - 10:00PM
Wednesday	11:30AM - 10:00PM
Thursday	11:30AM - 10:00PM
Friday	11:30AM - 10:00PM
Saturday	11:30AM - 10:00PM
Sunday	11:30AM - 09:30PM

SINCE 1987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및 한식

지금 경험하세요!

Catering 주문 환영

TD Garden (Celtics & Bruins Game VIP 일식 담당)
The Colonnade Boston Hotel,
Winchester Country Club 일식 출장 연회 다수 경험



美 '셋다운 우려' 한시름 났다 장벽비용 뺀 예산안 나와

11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장벽 예산 제외키로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25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제외한 새로운 예산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장 29일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셋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도 한풀 꺾이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11시간에 걸친 예산안 관련 협상 끝에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국경장벽 건설 비용 15억달러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예산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공화당은 장벽 건설 예산을 제외하는 대신 기존 철제울타리 보수·국경 감시 등에 필요한 국경 보안 및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장벽 건립 예산만 포함되지 않으면 추가 국경안보 예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민주당의 지지는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오는 29일 오전 0시1분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9월30일까지 연방직원 수백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 휴가' 상태에 들어가는 정부 셋다운이 예고됐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5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셋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화당은 셋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을

회유하고자 분투를 벌여왔다.

다만 현재로서는 28일 전까지 상·하 양원이 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예산을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잠정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일단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벽 건립 비용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건립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전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9월 이후까지 기꺼이 넘길 수 있다"며 장벽 건설에 대한 입장을 다소 완화하는 듯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인 25일 예산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 "장벽은 건설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되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농업 종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장벽

을 짓겠다"며 첫번째 임기 완료 전 반드시 국경장벽 건설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도 장벽 건립 비용이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가 수개월 내 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다 하더라도 그때 역시 의회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당내 텍사스, 애리조나 등 국경 지역 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나 민주당은 국경 장벽 논의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멕시코와 약 48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리조나주 제프 플레이크(공화) 상원의원은 "추가적인 국경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든 접경지역 주가 동의하겠지만 3200km 길이의 거대 장벽이 '필수'라고 여겼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lchung@news1.kr



미국과 멕시코 국경

미·캐나다 불붙는 무역갈등 우유전쟁 이어 목재관세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캐나다가 미국 유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을 위협하고 나서면서 미·캐나다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농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캐나다는 미국을 상당히 거칠게 대하고 있다"며 "모두가 캐나다가 훌륭하다 여기지만, 그들은 수년간 우리 정치인들보다 한수 앞섰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캐나다는 위스콘신과 다른 국경지대 낙농업자들의 사업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이는 캐나다가 최근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Ultrafiltered Milk)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반박이다. 캐나다는 국내생산을 통제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국 낙농업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최근 이 정책을 치즈 원료용 우유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

미 유제품 수출위원회는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 수출을 뺏아먹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낙농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미 상무부는 캐나다산 연질목재에 부적절한 정부 보조

금이 제공되고 있다며 이에 3%에서 최대 24%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미·캐나다간 목재수출 문제도 35년 가까이 이어진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로, 이번 조치는 캐나다 측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캐나다산 연질목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며, 만약 정부 보조금이 부당하게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관세를 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는 미국 측 의혹을 부인하며 연질목재 관세는 부당한 징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짐 카 천연자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우리는 미·캐나다 양국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농촌지역 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규제활동을 촉구하는 농업 부흥 행정명령에서 명령했다.

yeoulim@news1.kr

골프 레슨

US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품질 전통상 대어 (매일, 화일)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물장 전통상대어,
 소중한 내 아가씨께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 있는 최상품 한수미
 • 다양한 수급에 대응
 • 엄밀히 대용으로 만든 가격 경쟁력
 • 국내산 유기농산채와 참기, 콩기
 • 최정제고 위생 안전 내비축대
 • 품질향상 위해 세심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 '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1986년 이후 최대규모 세법 개편...경제 '붐업'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소득세 최고세율 39.6→35% 인하, 상속세 폐지...'국경세'는 막판 제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문제...10년간 2조2천억 달러 감소 우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이 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에 따라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셀프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 시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2천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 날 발표된 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편 이후 최대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 소유의 대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개인별 과세대상 소득에서 현재 1인당 6천350달러, 부부는 1만2천700달러씩 공제해주는 액수를 2배로 확대한다. 따라서 부부 기준 공제액은 2만4천 달러로 늘어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글로벌로펀,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한다.

지난 수십 년간 패스 스루 비즈니스의 인기가 커지면서 현재 미국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은 패스 스루 비즈니스가 차지한다.

자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3.8%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폐지한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

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 소득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욕해왔던 제도다. 그는 2005년 이 세제 때문에 3천100만 달러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한 2조6천억 달러의 수익을 미국 내로 송환할 때 내는 일회성 '본국송환세'의 세율은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블룸버그 등은 본국송환세의 세율이 10%가 될 것으로 보도했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매겨왔다. 다만, 이를 본국에 들여오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과세를 미루기 위해 해외에 2조6천억 달러의 수익을 비축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을 처리할 때와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적은 편이다.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26일 백악관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고 입법 안정성을 기하도록 국경세 조항은 유보해달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국경세를 제외하긴 했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왕'으로 불리는 재벌 기업인이자 대부호로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직접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제 배 불리기' 논란도 불가피하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 계획을 잡았다"고 했다.

기업과 개인 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계속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 신설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었지만, 국경세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케어'의 입법을 추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 법안을 '예산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의 형태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 60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예산조정안 형태로 상정하면 미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를 활용해 통과된 법안이 세수를 감소시키면 그 법안은 10년 후 소멸한다.

leslie@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보기드문 전망좋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군,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접.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군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한미, 심야 틈타 전격 '사드배치 작전'...대선 의식

경북 왜관과 부산에서 동시에 대규모 수송작전 내달 9일 대선 이전 배치 완료해 '변수' 사전에 제거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격 배치했다.

지난 20일 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으로부터 사드 부지를 공여받은 지 6일 만이다.

내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 포대 배치를 완료해 대선 결과에 따라 있을지 모를 '변수'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날 새벽 2시를 전후해 경북 왜관과 부산에 분산해 보관하고 있던 사드 포대 장비들을 성주골프장 내의 사드 부지 예정지로 각각 이동해 배치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시작

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시간을 택했다.

이날 사드 포대 이동을 위한 대규모 수송 작전은 경북 왜관과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부산에서는 사드 장비 이동을 위해 대형 트레일러가 동원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 병력 80여개 중대를 경북 성주 사드 부지 예정지와 장비 이동경로 등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미군은 지난달 6일 미국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2기를 수송기편으로 오산 기지로 옮겨 후 성주와 가까운 경북 왜

관 미군기지로 옮겨 보관중이었다.

이어 미군은 그동안 수송기 외에도 선박으로 미국에서 사드 장비를 이동해 부산에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포대는 차량식 이동식 발사대와 레이더,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발전기, 냉각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사드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한 주한미군은 이날 곧바로 작전운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드 운용은 주한미8군 예하 방공포여단이 맡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연내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

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0일 SOFA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경북 성주군 소재 30여만㎡의 부지를 주한

미군에 공여했다.

당시 국방부는 부지공여절차 완료 후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다.

argus@news1.kr



26일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경찰 통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 골프장 입구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사드 후유증...환경영향평가·시설공사前 배치, 절차 논란

軍 "조속한 작전운용 위해 배치...향후 절차 따를 것"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가 전격 배치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26일 새벽 차량식 이동형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 냉각기 등 사드 운용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양국은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사전 운용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및 운용 점검을 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대선 전 사드 '알박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장비 및 미군

이 새로이 지을 시설이 향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드 부지내 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한미는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드를 운용하면서 레이더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레이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 주민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와 병행 추진 후, 향후 평가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가 반입된 점도 논란 대상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엄청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드체계의 작전운용능력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시설완비 후 실전 배치를 위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상시 사드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변인은 이같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 논란에 대해 "어제 배치가 된 것은 야전배치 개념에 의해서 시설공사 없이 배치가 된 개념"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것이 작성되면 환경부와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ayingjo@news1.kr

文, 사드배치에 '다음 정부 일임' 고수...뒤집을 수 있나?

"북핵 폐기 위한 외교적 카드 활용토록 넘겨줘야"

(서울·경기=뉴스1) 조소영, 유기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은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가 성주골프장 내 부지에 전격 배치된 것과 관련해 '차기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 훈련'을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해 "곧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시기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캠프에서도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는 입

장을 밝혔다. 이날 내용은 입장은 기존 문 후보 주장과도 나란히 한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전날(25일) TV 토론회에서도 "(사드를 배치하면) 다음 정부의 북핵 폐기 카드, 중국의 북핵 폐기 공조 카드가 어디 있겠나"라며 "한미 동맹을 굳게 지켜내며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TV 토론회에서 역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반발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아무런 외교를 하지 않고 어느 날 뒤통수 치듯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일관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실상 사드 배치가 완료 수순에 돌입한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되돌릴 여지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 것도 내달 9일 대선 이후 상황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girin@news1.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 참관에 앞서 군복 상의를 입고 있다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PRIL 28 - MAY 4,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ONE OF THE MOST DELICATE MARINATED KOREAN BBQ IN NYC IS NOW AT YOUR HOME!

H마트가 돈의보감 김우쉐프의 소고기 양념비법을 공개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고기양념의 황금비율을 오늘 배워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
- Packed Garlic पैकाण 5oz/pkg **2\$3**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29**
- Lotus Root 연근 **\$1.88**
- Nagaïmo 일본 마 **\$5.99**
- NATURE'S Tofu 자연담은 두부 Soft/Firm/Saken - Moz/pkg **\$0.99**
- Ya Pear 야배 **\$1.49**
- Gobo 우엉 **\$1.99**
- Ginger 생강 **\$1.29**
-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2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eef Heel Meat 스테이크 **\$7.99**
- Ox Tail 생소꼬리 **\$10.99**
- Beef Flank Steak 양치미 양지 (육가장) **\$6.99**
- Pork CT Butt for Bulgogi 돼지고기 불고기 **\$5.99**
-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소불고기 **\$6.99**
-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 사태살 **\$2.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Louisiana Head-on Shrimp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6.99**
- Salted Mackerel 자반고등어 **\$3.99**
- MUSSELS in a GARLIC BUTTER SAUCE **\$9.99**
- BANTRY BAY Mussel in a Garlic Butter Sauce 갈릭 버터 홍합 1 lb/pkg **\$2.99**
- MUSSELS in a TOMATO & GARLIC BUTTER SAUCE **\$9.99**
- BANTRY BAY Mussel in a Tomato & Garlic Butter Sauce 토마토 버터 홍합 1 lb/pkg **\$2.99**
- Live Jeju Olive Flounder 제주 활망어 **\$14.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ou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대 **\$9.99**
- KWONGCHUN Green Tea Seaweed Layer KWONCHUN 녹차김 0.7oz x 10ea/bx **\$9.99**
- HARU HARU Premium 100% Pure Sesame Oil 하루하루 참기름 **\$9.99**
-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백숙 7.4oz x 12ea/bx **\$12.99**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제4회 H마트 & 뉴욕 라디오 코리아 NYNUPA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 장학금 \$1000 및 특별 트로피와 상감 - 전체 1명

- 날 짜: 2017. 6. 3(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 사무관사: 2017. 6. 10 오전 11시 - 오후 4시
- 장 소: Leslie Great Lawn 40 Fort Lee Road, Leslie, NJ 07094
- 접수기간: 2017.4.21 - 5.28
- 참여대상: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 접수방법: H마트 NY, NJ, PA, MA 전 매장에 도착한 뒤
- 참가비: \$20 (참가 접수시 H마트 상품권 \$20 교체 증명)
- 수상 발표: 2017.7.7 (금)
- 접수시 병행하신 이메일로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시상식: 2017.7.8 (토) 주 제: 당일 공개
- 문의: H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 877-427-7386

- NONGSHIM Bubaek Jjagee Noodle Soup 농심 부대찌개면 4.4oz x 4ea/pkg **\$5.99**
- ESSENCIA Grapeseed Oil 에센시아 도드씨유 248oz **\$4.99**
- HOUSE Jumbo Wasabi 하우스 와사비 2 lb **\$2.99**
-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다용도 잔치당면 **\$2.99**
- HAOREM Pancake/Frying Mix 해오름 튀김/튀김 가루 **\$1.99**
- KTOWN Jajang Noodle with Black Bean Sauce 케미타운 청동 짜장 22.6oz **\$3.99**
- NONGSHIM Asian Apricot Tea 농심 하늬가래 청매실 700ml **\$21.99**
-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Chocolate - 4.0oz/Schokery) 4.0oz **\$2.99**
- SHIRAKIHO Ramune Drink 시라키호 라무네 드링크 All Flavors 7.5oz **\$0.99**
- HAOREM Canned Boiled Mackerel Pike 해오름 훈제 통조림 14.1oz **2\$3**
- DR. CHANG'S FOOD Veggie Soy Milk 경석품 배제밀 두유 All Flavors 24oz **\$9.99**
- SCOTT Extra Soft Tissue 스코트 Extra Soft 화장지 17roll/pkg **\$4.99**
- Dasibap Filter Bag for Soap 다시배 50x1 - 10 **\$1.29**
- CHOCOLATE PERFUME SOAP 초이스 열매누 Soap: Peach/Strawberry 4.0oz **\$3.99**
- WALDI Acrylic Scrubber 비달리 친환경 이크림 수세미 **\$0.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et,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et. All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H마트 고객센터 877-427-7386 H마트 BURLINGTON STORE: 3 Old Country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1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4차 TV토론 전후... 文 41.0% → 36.2% 安 25.2% → 24.7%

JTBC 여론조사... 5자구도 文 38.5%, 安 25.2%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 모두 전날 진행된 TV토론회 전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JTBC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 25일과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씩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 이날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는 41.0%에서 36.2%로 안

후보는 25.2%에서 24.7%로 하락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대선후보들은 모두 상승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2.2%에서 12.6%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4.6%에서 5.5%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5%에서 8.6%로 지지율이 올랐다.

이들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합산했을 경우 5자 구도에서 문 후보 38.5%, 안 후보 25.2%, 홍 후보 12.3%, 심 후보

7.5%, 유 후보 4.9% 순이었다. 바른정당이 당 차원에서 진행키로 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3자 단일화에 대해선 '찬성' 28.8%, 반대 34.3%였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가상했을 경우 홍 후보가 대선주자로 나서면 지지율이 14.3%였다. 반면,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10.7%였다. 한편, 25일과 26일 실시한 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각각 20.7%, 23.7%다. goodday@news1.kr



문재인-안철수 '격차 더 커졌다'... 40.4% vs 26.4%

한국일보 조사... 적극 투표층 文 42.4%, 安 27.3%

매일경제 · MBN 여론조사 5자구도선 文 40.3%, 安 29.6%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5·9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4~2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자 구도에서 문 후보가 40.4%로 안 후보(26.4%)를 14.0%포인트 차 앞섰다.

그 뒤를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10.8%, 심상정 정의당 후보 8.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5.1% 순이었으며 '없음 · 무응답'은 9.4%였다.

문 · 안 후보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각각 42.4%, 27.3%를 얻어 더 큰 차를 보였다.

앞서 같은 기관이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후보는 37.7%, 안 후보 37.0%를 보였다.

지지층 충성도 면에서도 문 후보 지지층의 78.4%가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반면,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사람은 23.3%였다.

지지후보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의사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홍준표 후보 지지층(72.8%), 안철수 후보 지지층(71.1%), 심상정 후보 지지층(38.3%), 유승민 후보 지지층(30.4%) 순이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5자 구도에선 문 후보 40.3%, 안 후보 29.6%, 홍 후보 9.7%, 심 후보 4.7%, 유 후보 3.4% 순이었다.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한 4자 구도 대결에선 문 후보 39.8%, 안 후보 31.3%, 홍 후보 9.8%, 심 후보 5%였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할 때는 문 후보 41.6%, 안 후보 30.8%, 홍 후보 9.3%, 유 후보 5.5%였다.

유 · 심 후보를 제외한 3자 대결에선 문 후보 43.2%, 안 후보 33.6%, 홍 후보 10.5%였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25.4%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일보와 매일경제가 의뢰, 발표한 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goodday@news1.kr

심상정, 진보정당 새 이정표 만드나... 비상한 상승세, 두자릿수?

지지율 상승 속 홍준표 추격... 沈 "먼저 洪 제쳐야"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7일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

이날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0명을 상대로 실시한 19대 대선 후보 다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심 후보는 7.5%를 기록했다. 심 후보는 해당 조사상 처음으로 7% 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새로 썼다.

심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44.4%)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2.8%)에 이어 3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13.0%)를 바짝 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5.4%)보다도 앞서 지지율 4위를 차지했다. 20대에서는 지지율 17.1%로 안 후보(11.1%)를 밀어내고 2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에서도 심 후보 지지율은 6.5%에서 8.6%로 상승했다. 홍 후보(12.6%)와의 격차도 표본오차(±3.1%포인트) 안으로 들어왔다.

심 후보가 이렇듯 상승세를 타게 된 배경에는 4차례의 TV 토론이 있다. 심 후보는 TV 토론회 초반 문 후보에게 공세를 펼쳐 문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비난받기도 했지만 소신을 바탕으로 한 정책 토론을 이어가면서 유권자에게 눈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5일 4차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심 후보를 향한 지지가 가시화되는 모습

이다. 심 후보는 당시 '1분 찬스권'까지 사용하면서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유감을 표하는 등 명확하게 소신을 밝혔다.

정의당에 당원 가입과 후원금도 답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전날(26일)에만 약 250명이 새로 당원 가입을 했는데, 이는 최근 하루 평균의 10배 수준이라고 한다. 후원금은 지난 25일 TV 토론 종료 이후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정의당에 모이는 기존 하루 후원금의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이에 처음으로 대선을 완주하는 심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가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달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정의당 내부에선 일단 두 자릿수 지지율 진입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심 후보는 "먼저 홍 후보를 제쳐서 1강 2종을 만들고 그 뒤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를 만들 것"(27일 관측클럽 초청 토론회)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박원석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향후 전망에 관해 "TV 토론이 두 번 남았고 막판 사표 방지 심리가 있다"며 "문 후보나 안 후보 쪽에서 서로 위기를 부추기면서 마지막 1%까지 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텐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 1주일 동안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

girin@news1.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였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p>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p>	<p>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p>	<p>비비안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NEW LISTINGS				LISTINGS	
<p>Residential</p> <p>Single Family</p> <p>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p>	<p>Residential</p> <p>Condo</p> <p>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 및 Garage, 파킹. T- 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p>	<p>Commercial</p> <p>살롱 & 스파</p> <p>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p>	<p>1.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p> <p>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p> <p>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p> <p>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p> <p>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p> <p>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p> <p>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p> <p>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p> <p>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p> <p>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p> <p>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p> <p>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p> <p>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p> <p>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p> <p>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p> <p>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p> <p>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p> <p>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p> <p>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일식당</p> <p>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컨비니언스 스토어</p> <p>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비즈니스 콘도</p> <p>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한국식당</p> <p>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세탁소</p> <p>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p>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여진 계속... 일선 법관들 '부글부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사법개혁 모색을 위한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축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선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과 발표를 놓고 일선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A4 57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게시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26일간 진행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가운데 일부만을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학술대회 축소 등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판사를 인사 조치하는 등 탄압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논란이 됐던 '법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일선 법관들은 조사위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등에 조사위의 조사방식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법관들의 주업무는 재판이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확정하는 작업이 재판을 위한 전제 작업이다.

이 때문에 다수 법관들은 이번 조사

위원회 보고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부른 결론을 내리는 등 허점과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논리로 중무장한 법관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조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배포한 18일 일과 시간 이후 법관들은 코트넷에 직접 조사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판사들은 조사위원회가 물적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경지원 소속의 A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모 판사(38)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함에도 심의관의 진술과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을 근거로 의심스러운 컴퓨터 파일이나 이메일에 접근해 보지도 못하고 블랙리스트의 존부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린 측면이 강하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사위원회가) 물적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와 방법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됴에도 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법원행정처장이 협조한 것은 무엇인가"라며 "행정처나 처장의 비협조로 임의제출에만 의존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안 판사는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기초실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걸린 뒷조사 파일의 존재 여부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서 살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인데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행정처가 하드 디스크 제공을 거부했다면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가 떳떳했다면 그런 자료(뒷조사 파일) 만든 적이 없으니 못 주겠다고 하기 보다는 문제된 기록 정정 하드를 제공해 떳떳함을 밝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진상조사와 관련해 판사회의 대표로 뽑혀 조사위에 일선 판사들의 입장을 전달했던 B 판사 역시 "(부당압력을 받은) 이탄희 판사는 블랙리스트에 관한 얘기를 듣고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됐고, 행정처 근무에 대한 실망과 법관직에 대한 회의를 느껴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위가 컴퓨터 파일이나 이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고서 성급하게 블랙리

스트의 존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관들은 또 조사위원회가 이번 사건으로부터 법원 수뇌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한 법관이 학술대회 축소 지시는 물론 법관 뒷조사 문서에 대한 언급에 충격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조사위의 결과보고가 있기 전에 일부 언론이 해당 법관이 조사위에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보면 학술대회 축소 압박을 받은 해당 법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한 반면 반대 진술을 한 이 모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은 압박과 뒷조사 문건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두루뭉술한 진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사위원회는 이탄희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뒀어 판사에 대한 압박과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판사들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해 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째인 20일 현재까지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늦은 오후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jurist@news1.kr



'판사통제 의혹' 사건 윤리위로... 당사자 대기발령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등 목소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법원 진상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을 24일 부의(附議)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업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위 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혹 당사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사법연수원 18기)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5월1일자로 겸임해임돼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로인 '연구법관'으로 인사조치됐다.

하지만 조사위 결과 행정처의 폭넓은 관여가 드러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이 57쪽의 보고서 곳곳에 담겼음에도 양 대법원장이나 고영한 행정처장 등을 빼고 이 위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 처장은 조사위 발표 이틀 뒤인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지만 관련자 징계와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 없이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자 사안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지난 22일 열린 전국 판사회의 대표 모임에서는 책임자 추궁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해 재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각급 법원은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측은 법원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이 위원이 연구회 측에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행정처 측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

다.

조사위 측은 이 위원이 임종헌 전 차장(58·16기) 주재의 실장회의와 고 처장 주재의 주례회의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연구회 측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25일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행정처 측이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논란이 일자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달 9일 간담회를 열고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dhspeople@news1.kr



양승태 대법원장

중사드 보복에 일본 악재까지... 제주관광 '겍시름'

일 정부, 한국 안보불안 이유 방문자제 권고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한국 방문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있어 제주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4월 29일~5월 5일)에 제주를 찾는 일본 관광객은 9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915명 대비 67.4%나 감소한 것이다. 크루즈나 국내 선박을 이용해 제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 2008명에서 50명으로 무려 97.5%나 줄어들었다.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한 이유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한국 방문을 자제하라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연일 언론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 불안을 보도하자 실제로 일본인 예약 관광객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관

계자는 "일본에서 아침·저녁으로 방한 자제령을 뉴스에 내보내다 보니 6월 예약 손님들까지 취소가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 여행사만 봤을 때 작년이 월 100명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월 40명 정도다. 60%가 줄었다"고 토로했다.

제주관광당국은 사드 보복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이 급감하자 일본으로 고개를 돌려 일본인 고객 유치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골든위크를 앞두고 발생한 예상치 못한 악재에 난감해하고 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와 일본 간 직항노선을 띄우기 위해 현지 여행사와 항공사를 만나 노력했는데 북핵 문제 때문에 발길이 끊기게 돼 난감하다. 하루 빨리 정세가 전환되지만 바랄 뿐"이라며 "일본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현지에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sy0104@news1.kr

PR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worldpay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꿈: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비디오회원...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BS, MBC, tvN, O'live, OCN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트럼프 행정부 "北. 대화의 길로 복귀 원해"

美 국무·국방, 국가정보국장 공동성명 발표
외교·추가 경제 제재...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트럼프 미 행정부는 26일 북한이 대화의 길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며, 북한 압박을 위해 외교적인 조치와 추가 제재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이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인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이

같은 목표를 위한 협상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와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외교적인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

관, 코츠 DN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체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대북 상황 브리핑을 했으며 이들의 공동성명 발표는 브리핑 이후 나왔다.

이날 공동성명은 대북 군사공격에 앞서 비군사적 옵션을 모두 소진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쿤스 의원(텔라웨어·민주)은 기자들에게 "대북 군사공격 준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국가적 힘의 모든 요소를 통한 광범위한 옵션

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8년 핵합의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했으며, 명단에는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이 올라 있다.

jjtan@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포브스 韓 50대 부자...이건희·권혁빈 재산 급증, 방준혁 24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지난해 재벌 기업 회장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는가 하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보복하는 등 정치적 충격이 있었지만 한국의 부자 순위에는 급변동이 없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7일 2017년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를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지난 1년간 삼성전자의 견인으로 6% 오른 덕분에 부자 순위가 크게 뒤바뀌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갤럭시 노트7의 리콜 사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60% 이상 뛰었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달러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건희 회장은 42억 달러가 늘어난 168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67억 달러를 보유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은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주식인 탓에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62억 달러로 평가되며 3위에 올랐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권혁빈 대표 재산은 61억 달러로 4위로 올라섰다. 그의 재산 증가분은 12억 달러로, 이건희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5~6위는 각각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올해의 순위에는 오투기의 함영준 회장과 효성의 조현상 사장, 넷마블게임즈의 방준혁 의장 등 3명이 새로 진출했다. 함영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이 각각 각각 47위와 49위에 랭크됐고 방준혁 회장은 일약 24위로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넷마블은 다음달 12일 기업공개(IPO)를 통해 시가총액을 최고 12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게임업계 1, 2위인 넥슨과 엔씨소프트를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넷마블 주식 24%를 보유한 방 의장 본인의 재산도 2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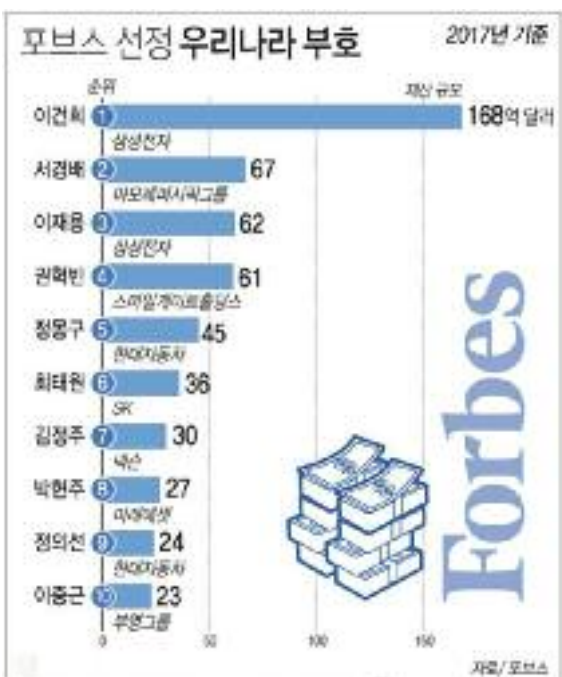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을 포함해 지난해 순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5명의 부자들이 올해에 모두 복귀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 포함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41억 달러 규모의 4호 펀드 조성에 힘입어 순위가 47위에서 38위로 상승했다.

포브스는 순위의 격변은 없었지만 상당수 부자들의 순자산이 줄어들었고 특히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증감률 기준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힌다고 밝혔다.

신약의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계약이 차질을 빚는 탓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54%가 하락했고 시가총액도 1년 전보다 45억 달러 줄어들었다. 임 회장의 재산은 56%가 줄어들었지만 올해 15위에 랭크되면서 부자 클럽에 머물 수 있었다.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정주 넥슨 회장의 재산도 27%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순위 자체는 지난해 6위에서 올해 7위로 한 계단 내려가는 데 그쳤다.

jsmoon@yna.co.kr



포브스 선정 우리나라 부호...이건희 9년 연속 1위

정몽구 회장 추월한 벤처부자 권혁빈 회장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지명도 낮지만 中 대박에 '500대 부호'

(서울=뉴스1) 박희진, 이수호 기자 =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500위 부호에 한국에서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이름도 생소한 게임업체 창업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500위 부호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이진희 삼성 회장(146억달러, 세계 60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68억달러, 세계 194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58억달러, 세계 247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53억달러, 세계 274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47억달러, 328위) 등이 세계 500위에 포함됐다.

권 회장은 특히 현대·기아차 브랜드로 세계에서 정평이 나있는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보다도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을 제치고 국내 IT 업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500위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권 회장은 2008년 온라인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를 중국에 수출해 '대박'을 터트리면서 단번에 부호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 선보인 크로스파이어는 연 매출이 1조원이 넘는다.

권 회장은 텐센트로부터 받는 로열티 수입으로 연간 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이 텐센트가 지급하는 로열티다. 국내 5위 규모다. 이익면에서는 더욱 돋보인다. 해외 로열티 수입이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인건비, 투자비 등 제반 비용 부담이 적어서다. 스마일게이트는 매출 6000억원에 영업이익이 3000억원에 달한다. 5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이다.

중국 매출이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권 회장이 거둔 중국 사업의 성공을 '로또'에 비유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권 회장이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속 후배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권혁빈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IT 100대 부자' 순위에서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한국인은 총 5명이 포함됐고 이중 삼성전자의 이진희 회장(19위)과 이재용 부회장(29위)이 가장 순위가 높았다. 이들 '상속형' IT부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60위), 김정주 NXC 회장(79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92위)이다. 권혁빈 회장이 김정주, 김범수 의장도 제친 셈이다.

김정주는 넥슨 창업자로 세계적인 'IT 부자'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김범수 의장도 한게임, 네이버를 거쳐 카카오톡을 일군 성공한 국내 1세대 IT 경영자로 정평이 자자하다. 이때문에 지명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권혁빈 회장이 김정주 회장과 김범수 의장을 제쳤다는 점에서 화제를 낳은 바 있다.

하지만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권 회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넥스트 크로스파이어'의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스마일게이트는 단일서비스 사업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모바일로 보폭을 넓히고 PC 신작을 개발하는 등 사업확대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2년간 300여명을 투입해 자체 개발한 모바일게임이 모두 흥행에 실패하는 등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girin@news1.kr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코성형, 눈성형, 가슴성형, 지방흡입, 지방이식, 안티에이징 전문

렉스성형외과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렉스성형외과에서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세요~

- 렉스만의 올인원 시스템 구축 ... 정재훈 원장님이 상담, 수술,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십니다.
- 개인별 맞춤 성형 ... 스페셜 성형 클리닉을 통해 코, 가슴, 주름에 있어 개인별 맞춤 성형을 제공합니다.
- 빠른 일상복귀 ... 수술 후의 불편함과 통증을 최소화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드립니다.
- 환자의 안전 최우선 ...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안전한 마취로 환자의 안정을 지켜드립니다.
- 서울대 동문병원 ...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동문병원으로 전문적이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진료합니다.

눈꺼풀처짐, 눈밑처짐 고민 그만 상안검, 하안검

- 1) 상안검 : 480만원 → 168만원
- 2) 하안검 : 480만원 → 168만원

김쪽같이 시간을 되돌리자 스마트 리프팅

- 1) 스마트 리프팅 : 720만원 → 600만원

동안을 향한 지름길 폴페이스 지방이식

- 1) 폴페이스 지방이식 : 280만원 → 200만원

숨겨진 S라인을 찾아라 올인원 지방흡입

- 1) 팔뚝 : 260만원 → 280만원
- 2) 복부 : 600만원 → 450만원
- 3) 허벅지 : 450만원 350만원



정재훈 대표원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자문의
- 대한성형외과학회 종신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미용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HomeServic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 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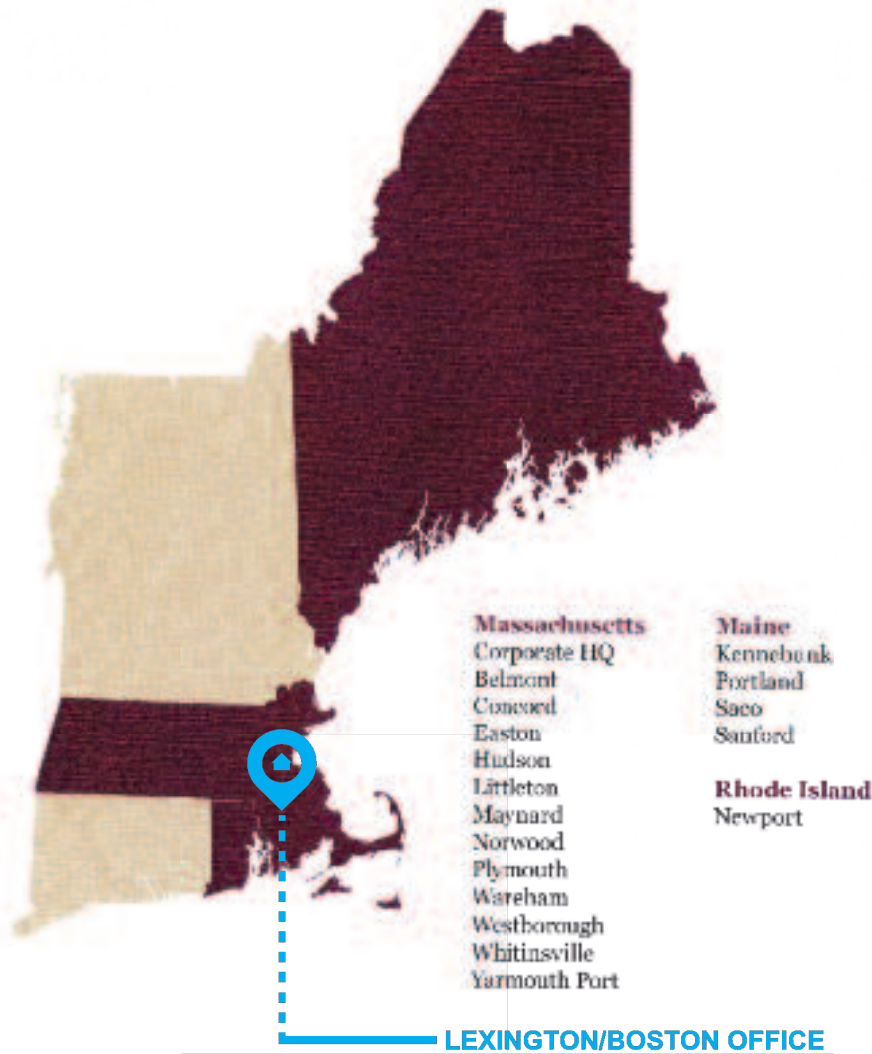
Angela Eleazar
617.319.6657



AI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드래프트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패츠 포지션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NFL 드래프트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2017 드래프트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패트리어츠의 오프시즌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1라운드 선택권을 내주고 거물급 리시버 브랜디 쿡스를 트레이드로 영입했고,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는 거액을 들여 코너백 스테판 길모어와 계약했다. 현재 패트리어츠는 1라운드와 2라운드 드래프트 선택권이 없으며 가장 빠른 순번이 3라운드 선택권이다.

패트리어츠는 당장 2017년에 급하게 필요한 포지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드래프트 초반 라운드 선택권을 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드래프트를 통해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선수들을 선택해야 하는 포지션들을 살펴보자.

슬롯 리시버

패트리어츠는 2017년에 충분한 와이버 리시버를 보유하고 있다. 어쩌면 2018년까지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슬롯 리시버에 한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간판 슬롯 리시버인 줄리언 에들먼은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이고, 올해 5월이면 31세가 된다. 에들

먼 다음으로 가용한 옵션은 대니 아멘돌라가 유일하다.

브랜디 쿡스, 말콤 미첼, 크리스 호건 등의 선수들은 모두 뛰어난 리시버이지만 안쪽으로 빠르게 파고드는 스타일은 아니다. 따라서 패트리어츠는 너무 늦지 않게 슬롯 리시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패트리어츠가 에들먼과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30세가 넘은 에들먼과는 1-2년 정도의 계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에들먼의 부상이나 기량 저하도 대비를 해야 한다.

탐 브래디 시대 이후 슬롯 리시버는 패트리어츠 공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패트리어츠는 미래에 대한 보험과 투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드래프트에서 체구가 작은 리시버를 선택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미들 라인백어

패트리어츠와 재계약에 성공한 단테 하이타워는 다시 디펜시브 캡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아마도 향후 4년 동안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하이타워가 이끌 것이다. 그래도 패트리어츠는 가까운 미래에 하이타워를 대체할 선수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패트리어츠의 로스터에는 하이타워의 뒤를 이을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신체적인 조건과 기량 등을 따져 봤을 때 하이타워는 패트리어츠 내에



패트리어츠는 간판 슬롯 리시버 줄리언 에들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서 유일무이한 선수다.

이미 하이타워는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패트리어츠도 하이타워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재계약을 심사시켰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하이타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해야 한다.

키커

스티븐 고스코우스키는 여전히

NFL 최고 키커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최근 2시즌만을 놓고 본다면 이상 징후를 엿볼 수 있다. 게다가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고스코우스키에 계속 의존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높다.

현재 33세인 고스코우스키는 2018년까지 패트리어츠와 계약이 맺어져 있다. 그러나 나이와 기량 저하를 감안했을 때 남은 두 시즌 동안 590만 달러의 연봉은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올해 패트리어츠의 드래프트가 단기간의 필요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키커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올해 드래프트에서 선택될 키커는 3명 정도로 예상된다. 어쩌면 이 중 한 명이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게 될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추신수, 시즌 2호포+3루타 폭발...김현수, ML 통산 100안타

(서울=뉴스1) 정명의, 맹선호 기자 =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2호 홈런을 포함해 3안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메이저리그 통산 100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6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 위치한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9번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5타수 3안타(1홈런) 3타점 3득점 1삼진으로 맹활약, 팀의 14-3 대승을 이끌었다.

사이클링 히트에 2루타 하나가 부족한 만점 활약을 펼친 추신수는 타율도 종전 0.230에서 0.258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오클랜드전 이후 7경기 연속 경기 출루행진도 이어갔다.

추신수는 0-2로 끌려가던 3회말 2사 1, 2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좌익수 뜬공에 그치며 추격 기회를 놓쳤다. 4회말 2사 1루에선 파울팁 삼진으로 허무하게 물러났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 달랐다. 6회말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기회를 이어갔다. 이는 대량득점으로 이어졌다. 1사 만루에서 폭투로 역전에 성공한 텍사스는 엘비스 앤드루스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6-2로 달아났다.

추신수는 8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올 시즌 첫 3루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딜라이노 드윌즈의 좌전 적시타에 홈을 밟았다. 이어 텍사스의 라이언 루아는 만루기회에서 그랜드슬램을 터뜨리며 4점을 추가했다.

타자일순한 가운데 추신수는 8회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섰고, 2사 1, 3루에서 마이클 톤킨의 초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으로 연결했다.

8회에만 8점을 쏟아낸 텍사스는 14-3까지 벌였고, 9회를 실점없이 막아 시즌 10승(12패) 고지를 밟았다.

김현수는 탬파베이 라이즈와의 홈 경기에서 7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으로 멀티 출루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메이저리그 통산 99안타를 기록 중이었던 김현수는 최희섭, 추신수, 강정호에 이어 한국인 선수로는 네 번째로 메이저리그 100안타 고지를 밟았다. 시즌 타율은 0.250을 유지했다.

김현수의 통산 100번째 안타는 첫 타석에서 나왔다. 2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등장한 김현수는 콧의 4구 째를 받아쳐 좌중간 안타를 터뜨렸다. 1루에 나가 있던 김현수는 조나단 스콧, 라이언 플래허티의 연속 안타로 홈을

밟으며 팀에 1-0 리드를 안겼다. 이어 볼티모어는 추가 안타와 상대 실책 2개를 묶어 2점을 추가, 3-0으로 앞서나갔다.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1루수 땅볼로 물러난 김현수는 6회말 무사 1루에서 바뀐 투수에 라스모 라미레즈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연장에 접어든 경기에서 김현수는 3-4로 뒤진 11회말 5번째 타석에서 중요한 출루를 성공시켰다. 1사 1, 2루에서 상대 투수 알렉스 콜로메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라 만루를 만

들었다. 볼티모어는 조나단 스콧의 희생플라이로 4-4 동점을 만든 뒤 라이언 플래허티와 세스 스미스의 연속 볼넷으로 밀어내기 득점에 성공해 5-4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볼티모어는 14승6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를 달렸다.

한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이날 열리지 못한 경기는 28일 더블헤더로 치러진다.

starburyny@news1.kr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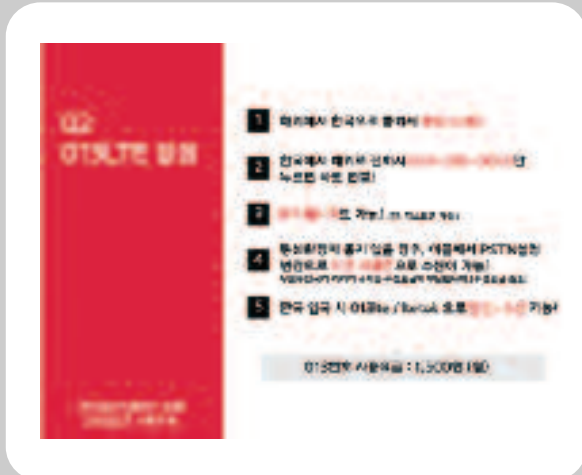
보스톤에서 한국전화번호를 사용하자!

엄마!
617 미국번호 아닌
013 한국번호로
전화해 ♥♥♥

분당: 5¢ (60원)
월 사용요금:
\$1.50 (1500원)



쉽고 편리한 국제전화!
013LTE



가입 문의:

617.955.9112

161 Harvard Ave. #13, Allston, MA 02134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Everett Parish of Convent Church

성삼일 미사 및 전례 안내

성목요일 (4/13)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4)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5)
9pm-부활 성미사

부활절 (4/16)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시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임목사: 박일종 목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임성진 목사
유년부: 임재승 목사
유스: David Moon 강도사
청년/EM: David Moon 강도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선호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781.266.7245

HITRONS

INADA
The World's Best Massage Chair™
전지역 무료배송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마의자 메디칼 안마의자

치료기능이 더욱 강력해진
이나다 2017년 NEW Dream Wave 출시

전신 마사지와 효과를 입증한 이나다안마의자는 동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속 혈관을 자극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도 좋아 많은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는 마사지처어입니다.

1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근육속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 개선 및 림프마사지 기능으로 노폐물 제거 효과 및 손가락 끝 및 발가락 끝의 모세혈관까지 자극시켜 당뇨환자에게 효과.

3

목과 어깨 등의 탁월한 안마기능

특수 제작된 베개 타입 에어백 유닛으로 경추 및 승모근 부분을 정확히 찾아 안마해주며 Human 안마기법으로 사람의 손과 같은 동작으로 부드럽고 정확한 마사지.

4

불면증 해소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신경을 부드럽게하고 통증을 해소시켜 불면증 해소에 탁월한 기능.



2

근육 통증 및 수축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노환으로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경직된 신경을 풀어주고 첨단 센서로 지압점을 정확히 찾아 동친 부위를 해소시켜 주어 근육통증을 해소.

5

체형 및 골반 교정 기능

목 아래 경추부터 요추까지 뼈를 둘러싼 근육들의 마사지로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어 활성화시켜 뼈를 지탱하는 힘을 강화시켜 척추 교정 기능. 골반 아래 부분의 데블 에어 콤투레서로 리더미집한 안마기능 및 체형 교정 전문가들의 교정기법, 탑재된 특수 스트레칭 기능으로 골반 교정 및 척추 교정 기능.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된 이나다 안마의자의 놀라운 효능

이나다 안마의자
체형교정 골반교정 탁월한 효과!



DREAMWAVE
48개월
\$194/월 + Tax
36개월 무이자



NEST
\$7,900
\$6,000
36개월 무이자



FLEX 3
\$7,500
\$4,300
12개월 무이자



www.hitrons.com

하이트론스 HITRONS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몰 내)

HITRONS 필라지점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 201-417-535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201-417-5350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Language Bridge, LLC

Language Bridge, LLC professiona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gency, is currently looking for qualified, bilingual and bicultural native speakers who are willing to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on an as-needed basis in Massachusetts, Connecticut and New Hampshire.

We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legal and medical organizations as well as for community-based agencies, schools, social services, and a variety of the institutions.

If you are interested to apply for the position at our company, visit our website(www.lbridge.com) and register as a new interpreter. The hiring manager from Language Bridge, LLC will contact you within 48 hours with additional information.

We work flexible hours and you will be able to pick your own assignments. Reliable transportation and internet access are required.

P.O. Box 60503, Longmeadow MA 0116
Phone: (413) 754-3488 Fax: (413) 567-1295
Email: info@lbridge.com
www.LBridge.com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에이어 우정식당 주방에서 일하신분과 웨이추레스 구함.
T. 508-395-2956

주방헬퍼,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함
T. 781-863-2800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Turn Key! Japanese Sushi Restaurant Business for Sale!

Price drastically reduced by more than 50%! It was \$176,000, now only \$87,000!
Great high traffic (cars and foot) busy main road in major city in Boston.
Write detail about what you do now, no seller financing available.
Serious inquiries only, if interested write to: mikasarealty@yahoo.com for more detail.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8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술/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해군도합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한인협회	781-854-8880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802-734-2521
성균관대동창회	508-541-6969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어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톤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새로남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교회	617-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아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터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이명원 회계사	508-584-5860
정진수회계사	617-792-2355
한미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굴방	617-437-0378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508-734-4446
웨스트메인 헤어	508-768-7675
케이티헤어디자인	978-772-7886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 살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지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신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심경정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형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영차우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네스	617-871-1482
켄지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

'여성의 성기능 문제,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세요!'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레이디유로 비뇨기과' ... "음성적으로만 여겨왔던 성기능과 관련된 고민들, 전문의와의 상담 통해 해결하길"

‘속 좁은 여자가 아름답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의료관광 네트워크 휴람에서는 음성적으로 여겨졌던 여성 성기수술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휴람 네트워크 레이디유로 비뇨기과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드리고자 한다.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성이 보다 개방되고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여성의 성 기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속이 좁은 여자, 명기와 같은 말이 생겨난 것 아니라. 성은 더 이상 남자만의 것이 아니다.



◎ **나에게 맞는 질축소수술 방법들**
: 많은 중년여성들이 질 축소수술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잠자리 문제에서부터 고민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꼭 잠자리 문제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도 고민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질 방귀나 성교통, 밑 빠짐과 같은 질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질환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성의 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 잦은 성관계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해 질 내부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본래 여성의 출산 전의 질 내부의 상태는 좁고 탄력이 있으며, 남성을 잡아주는 질 근육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출산 후 여성의 질은 골반 근육이 넓어져질 근육이 과열로 인해 잠자리 만족도가 떨어질 뿐 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늘어진 피부들로 성감 하락의 원인이 된다. 배우자와의 잠자리

만족도나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 자신감 하락 등의 요인으로 많은 중년 여성들은 질 축소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하지만 질 축소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진을 통해 나와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작용의 확률 또한 적어진다.

◎ **질축소수술, 흔히 말하는 '이쁜 이수술' 의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 첫번째 질 축소 방법인 3d리타이트닝은 기존의 질 입구만 좁히던 수술이 아니라 질 입구안쪽부터 경부근처까지 가로 3~4cm 세로 7~8cm 정도를 미세 박리 후 근육을 최대한 당겨 봉합을 한다. 그리고 다시 점막을 당겨 한 번 더 봉합(2중 봉합)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질 내부를 두껍게 해주고 이중 봉합을 통해 주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출산 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수술방법이다. 수면마취를 통해 수

술소요시간은 30~40분정도이며 1시간 정도 회복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성관계는 6주 회복기간이 지나고 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 레이디임플란트 방법은 3d리타이트닝 질 축소수술에서 좀 더 나아가 특수 의료용 특수 링을 질 내에 (반지 낀 모양으로) 삽입을 하는 방법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3d리타이트닝 수술과 동시에 링을 삽입하는 방법. 늘어난 질을 좁혀주고 특수 링으로 좁혀진 질을 한 번 더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쁜이수술 2배 효과 라고도하며 주로 질점막이 두터우신 분들에게 좋은 수술 방법이다.

링만 삽입했을 경우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30분내외이며 3d리타이트닝 수술방법과 동시에 진행이 됐을 경우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레이디임플란트도 3d리타이트닝과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회복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성관계는 6주 회복기간이 지나고 하는 것이 좋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질

축소 수술 방법이며 수면마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불편함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세번째 필러 방법은 수술을 하지 않고 고도 질 구경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시술이다. 원하는 부위에 국소 마취 후 질 안쪽에 주사기로 정해진 용량의 필러를 주입을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필러와는 달리 입자가 굵고, 시술 초기부터 주변의 콜라겐과 엉겨 붙어 하나의 캡슐 형태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유지기간이 다른 필러들과 비교했을 때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력이나 마사지 및 물리적 자극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시술시간도 5~10분 이내, 회복기간도 10일로 짧기 때문에 미혼여성들이 즐겨하는 시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모나리자터치 레이저 방법은 또 하나의 수술 없이 질을 축소하는 레이저 장비 이름으로 질 안으로 레이저 기구를 삽입해 질벽에 5mm씩 360도 회전을 하며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콜라겐 세포가 재생되면서 질벽이 두꺼워지고 수분함량이 늘어나게 된다.

수술이 부담스럽거나 건조증, 위축증, 애액감소, 성교통, 경미한 요실금 증상과 질축소를 한 번에 원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시술법이기도 하다. 시술시간은 5분 정도로 회복기간도 짧아 간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필러와, 레이저 시술들은 짧은 시술시간, 회복기간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수술에 비해 유지기간이 짧아 꼼꼼하게 따져보며 시술 받는 것을 권한다.

이처럼 질축소를 하는 방법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질축소를 생각하기 전에 본인의 증상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음성적으로만 여겨왔던 여성의 성기능에 대해 상기의 증상들이 있다면 고민만하지 말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를 휴람 해외의료사업팀 김수남팀장은 권유드린다고 전한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이성민 · 조진웅 · 김성균 '보안관'... 짠내나게 웃겨드려요

(서울=뉴스1스타) 서혜림 기자 = '미생' '시그널' '응답하라 1994'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연기를 보여준 개성과 배우 이성민, 조진웅, 김성균이 이번엔 영화 '보안관'으로 뭉쳤다.

3명이 어떻게 친해졌냐는 질문에 이성민은 "다시 태어나면 꼭 술을 잘 먹고 싶다"며 술로 친해지지 않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성균은 "술 드신 것처럼 술자리에 앉아계십니다"라며 친분을 드러냈다.

배우 이성민, 조진웅, 김성균이 출연하는 '보안관'은 전직 경찰이 서울에서 내려온 사업가를 범죄자로 의심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다. 이성민은 부산의 기장 토박이인 전직 형사 대호 역을, 조진웅은 사업가 종진 역을, 김성균은 대호의 유일한 조수인 처남 덕만 역을 맡았다. '보안관'은 5월 3일 개봉한다.

suhhyerim777@news1.kr



"쌈→쌘 기대해"... 박서준 · 김지원 '쌈 마이웨이'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쌈, 마이웨이' 박서준, 김지원의 티저가 베일을 벗었다.

KBS2 새 월화드라마 '쌈, 마이웨이' (극본 임상춘/연출 이나정) 측은 지난 24일 온라인에 첫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고동만(박서준 분)과 최애라(김지원 분)의 유쾌한 싸움이 그려졌다.

태권도 유망주였던 동만과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애라. 태권도복과 핑크빛 정장을 입고 등장한 두 남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으며 서로를 향해 묘한 미소를 보였다. 이어 애라는 마이크 펀치를 날렸다. 애라의 선전포고에 동만은 도복을 벗어던졌고, 애라는 재킷을 벗어 동만의 머리로 날리며 초크 기술을 걸었다. 이에 질세라 동만이 애라의 팔뚝을 물고, 둘은 결국 머리채를 잡았다.

이번 영상은 서로의 치부까지 꿰고 있는 친구로서 조금이라도 더 놀리고 약 올리려 안달인 두

사람의 '쌈'의 관계를 코믹하고 유쾌하게 그려냈다. 이판사판 싸우고 있는데도 귀여운 커플 티를 입고 두 남녀의 모습이 흐뭇한 미소를 불러 일으키며 '쌘' 관계로 발전할 로맨틱한 성장에 기대를 불러넣었다.

'쌈, 마이웨이' 관계자는 "첫 티저 영상은 '까도 내가 까다'는 의미 속에서도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골 때리는 우정을 지닌 두 남녀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고 있다"며 "박서준, 김지원이 적나라하게 싸우면서도, 서로의 험글어진 머리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등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마쳤고, 그런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말했다.

한편 '쌈, 마이웨이'는 세상이 보기엔 부족한 스펙 때문에 마이너 인생을 강요하는 현실 속에서도 남들이 뭐라든 '마이웨이'를 가려는 마이너리그 청춘들의 성장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다. 오는 5월 방송 예정.

hjk0706@news1.kr



이정재X여진구 '대립군' '광해' 잇는 시국 사극될까?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대립군'이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까?

정윤철 감독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대립군' (정윤철 감독)의 제작보고회에서 이번 영화에 대해 "준비하게 된 2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때 아시다시피 리더십이 실종된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저 자신도 마음이 울적했던 시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때 '대립군'이라는 시나리오는 임진왜란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도 실종된 상황에서 어린 세자가 대립군이라는 백성들과 고난을 겪으면서 새로운 리더로 성장해 나간다는 설정, 이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에 대해 생각했다"라며 "대선 전에 이런 얘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백성의 힘으로 좋지 않은 리더 폐하고 새로운 리더를 뽑는 시점이 돼서 영화의 뜻하는 바가 잘 전달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영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대립군'은 임진왜란 당시 파천한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 왕세자로 책봉돼 분조를 이끌게 된 광해와 생계를 위해 남의 군역을 대신 치르던 대립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역사 속 실제 존재했던 대립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온 '팩션' 사극이다.

이정재가 대립군의 수장 토우 역을, 여진구가 전란 속 조선을 이끈 왕 광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또 김무열이 대립군의 명사수 곡수 역을, 이송이 광해를 곁에서 보위하는 의녀 덕이 역을, 박원상이 대립군의 의리파 조승 역을, 배수빈이 광해의 충성스러운 호위대장 양사 역을 맡았다.

이날 여진구는 자신이 맡아온 기존 왕, 왕세자의 연기와 '대립군'에서 맡은 광해 역할의 차별점에 대해 "지금까지 왕, 왕세자가 갖고 있는 흔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그런 느낌. 태어났을 때부터 완벽했을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고 사진에서처럼 현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간미 넘치는 광해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병헌의 '광해'와 차이점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말해 '소년 광해'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영화의 내용이 리더십에 대한 것인만큼, 배우들은 대선을 앞둔 시국과 관련해 '리더의 덕목'을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여진구는 "연기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과 사람의 믿음을 찾고 싶어하는 구나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 광해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박원상은 "좋은 리더의 덕목은 두가지다. 공감, 상식.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정윤철 감독은 같은 질문에 대해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리더"를 꼽으며 "우리는 그런 리더가 없어 힘들고 마음이 다쳤는데 모쪼록 이 영화가 그런 리더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영화 볼 때 새로운 리더가 선정되었을텐데 그분들이 영화 속 리더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대립군'은 오는 31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4월 17일 ~ 2017년 4월 23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8.7%
2	KBS1	대선후보KBS초청토론	26.4%
3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3.3%
4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2.0%
5	KBS1	KBS9시뉴스	17.4%
6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6.5%
7	SBS	월화드라마(갯속말)	15.5%
8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13.4%
9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13.2%
10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11.8%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3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4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5	SBS	아침연속극(아임쏘리강남구)
6	SBS	월화드라마(갯속말)
7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8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9	MBC	일일드라마(행복을 주는 사람)
10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사랑이 잘 (With 오혁)	아이유
02	She's a Baby	지코 (ZICO)
03	밤편지	아이유
04	REALLY REALLY	WINNER
05	팔레트 (Feat. G-DRAGON)	아이유
06	Marry Me	마크툽, 구윤희
07	BLUE MOON (Prod. GroovyRoom)	효린, 창모
08	KNOCK KNOCK	TWICE
09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하이라이트
10	부담이 돼 (Feat. 휘인 Of 마마무)	정키

숫자 퍼즐 (Sudoku)

9						4	1	7
		6	9	7	5			
		8						
		2		1	7		8	
7			5	9	8			6
	9		4	2		7		
						2		
			8	5	2	3		
2	3	7						8

4월 30일 - 5월 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좋은 마음으로 보면</p> <p>●운수:웬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당장은 금전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애정:립다립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믿게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 5일 길일. 4, 6일 주의.</p>	<p>소띠 잠시 휴식의 시간을</p> <p>●운수:단 하루라도 모든 걱정이나 근심은 접어두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금전: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돌아오는 일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애정:부부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 6일 길일. 2, 5일 주의.</p>	<p>범띠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p> <p>●운수: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잘 극복해야 합니다. ●금전:가능성이 안 보이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이미 손해 본 것이 복구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상대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4, 5일 길일. 30, 6일 주의.</p>
<p>토끼띠 불쑥 동하는 마음이 생기고</p> <p>●운수: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보세요. 전보다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금전:완벽하게 하려다가는 끝이 없는 법이니 매사에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잘 풀리게 합니다. ●애정:누구나 어느 날 불쑥 동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무조건 빠져들어 갈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p>	<p>용띠 한만큼 얻는 것이 있는</p> <p>●운수:주위의 도움을 사양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전:열심히 하느냐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는 한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정: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그때그때 전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 3일 길일. 30, 2일 주의.</p>	<p>뱀띠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야</p> <p>●운수: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는 정작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금전: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정: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쪽은 이미 끝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6일 길일. 30, 3일 주의.</p>
<p>말띠 얼마든지 기회가</p> <p>●운수: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금전:실패를 여기서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노력하려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6일 길일. 1, 4일 주의.</p>	<p>양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p> <p>●운수: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되려면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가까이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속사정을 표현해야 제대로 도움도 받게 됩니다. ●애정:자신이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보세요.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0, 4일 길일. 2, 5일 주의.</p>	<p>원숭이띠 입을 꼭 다물어라</p> <p>●운수: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니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금전: 일이 성사되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어라 합니다. 오히려 다 된 일이 막판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불만족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평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p>
<p>닭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p> <p>●운수: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막혔던 일이 풀릴 것입니다. ●금전:인맥을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득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애정: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떨어져 큰 일 나는 줄만 알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날개가 있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p>	<p>개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p> <p>●운수:꿈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질 무지개라곤 관련합니다. 현실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주먹구구식 일처리나 어설픈 임기응변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돈도 들어오고 살 길이 열립니다. ●애정: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4일 길일. 2, 5일 주의.</p>	<p>돼지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p> <p>●운수:우물 안 개구리는 바깥세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보세요. ●금전: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애정:꼭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야 고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더 큰 고문이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p>

전인권 또 구설... '걱정말아요 그대' 표절 논란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가수 전인권이 논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인권은 26일 히트곡 '걱정말아요 그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곡이 독일에서 1970년대 발표된 '드링크 도흐 아니네 멧'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인권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걱정말아요 그대'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는 "유사한 느낌은 있지만 표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권의 표절 논란은 콘서트 취소 사태 후 곧바로 이어진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전인권은 5월 6일과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7일 공연이 티켓 판매 부진으로 취소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공연 취소가 전인권의 안철수 지지 발언 여파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연사 측은 뉴스1에 "안철수 후보 지지 발언과는 무관하다. 안 후보 지지 발언 후 취소된 표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팬



들의 티켓 구매도 이어졌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인권은 지난 18일 콘서트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타 당 지지자들로부터 '적폐가수'로 비난 받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안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최근 전인권씨가 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가 수모를 당했다. 문 후보 지지자로부터 적폐가수라는 말까지 들

었다. 옳은 일이나"고 발언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토론회 후 전인권은 자신의 SNS에 "우리에게 처음 나타났던 안철수씨를 한번 더 기억해보고 돈을 벌어가진 거 없는 사람들 돕고 싶다는 그런 정치인 한번쯤 (보고 싶다). 교황님이 아니고 정치인(을 보고 싶다)"고 추가 지지 글을 남겨 또 한 번 관심을 집중시켰다.

hnh1@news1.kr



'빅뱅부터 장기까지' 혁오, 새 앨범 향한 호평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밴드 혁오의 첫 정규앨범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혁오의 첫 정규앨범 '23'은 지난 24일 오후 6시 공개 이후 실시간 음원 차트 정상 및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었다. 동료 뮤지션들도 혁오의 새 앨범에 대한 호평을 보냈다.

빅뱅 지드래곤은 오혁이 '23' 아트워크와 함께 올린 앨범 발매 공지 게시물을 자신의 SNS 계정에 리포스트했다. 태양역시 '23'의 아트워크를 게재했다.

다이나믹듀오 개코는 "우리 짹짹이 동생 앨범 드림! 기대된다 정주행해야지"라는 글을 남기며 기대감을 표했다. 빈

지노는 수록곡 'Tokyo Inn'(도쿄 인)의 스트리밍 인증샷을 남기며 추천을 아끼지 않았다.

장기하는 "동생들 음악이라 사람들한테 좋다고는 해야겠는데..라는 고민을 털끝만큼도 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젊음을 파는 음악과 젊음이 있는 음악은 다르다"는 극찬을 남겼다.

혁오의 이번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TOMBOY'(툼보이)와 '가족자켓'을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가사로 구성된 총 12곡이 수록됐다. 혁오 특유의 감성과 화법으로 이 시대 청춘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ppbn@news1.kr

'라디오스타' 김성균 "영화촬영중 정신혼미...접신 할 뻔"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배우 김성균이 영화 촬영중에 접신을 할 뻔 했다고 털어냈다.

그는 "영화촬영 중 무속인들 굿하는 걸 봤는데 고조되는 굿판에 정신이 혼미해졌다"며 "그때 무속인 한 분이 굿판에 한번 서보라고 하더

라" 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땀을 계속 흘린다 보니까 시간 가는줄 모르겠더라. 정신이 멍해지고 이상해지더라"며 "그때 무속인 분이 '이양반 보니까 신내림이 올수도 있겠다' 고 하더라." 고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제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 스태프분들이 '진짜 신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며 걱정을 하더라"고 당시 접신할 뻔한 사연을 밝혔다. 이에 김구라는 "제 2의 정호근이 될 뻔했다" 고 덧붙혔다.

galaxy98@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위의집', 믿고 보는 김윤진+스릴러+모성애



(서울=뉴스스타) 정유진 기자 = '믿고 보는' 배우 김윤진이 스릴러로 돌아왔다. 영화 '국제시장' 이후 3년 만의 국내 복귀작이다.

'시간위의 집'은 남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여인이 25년의 수감생활 끝에 과거 살았던 집에 돌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김윤진이 주인공 미희역을 맡아 2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연기를 선보인다. 또 2PM 옥택연이 미희의 결백을 믿는 최신부 역을 맡았다.

김윤진은 이날 3년 만의 복귀에 대해 "더 빨리 좋은 작품으로 인사하고 싶었지만 그 기회가 늦게 와서 아쉽다"라며 "그동안 '미스트리스'라는 드라마를 시즌4까지 마무리했다. 아마도 3년간 '시간위의 집'을 기다린 것 같다. 드디어 개봉이 돼서 너무나 설레고 반갑기도 하고,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진은 노인 분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국제시장' 이후 다시 노인 연기를 했다. '국제시장'과 다르게 시간위의 집에서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넘어 25년후 미희의 변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라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국제시장' 때는 아쉬움이 많아 이번에는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히 감독님을 매일 괴롭혔다"라고 자신이 기울인 노력을 밝혔다.

eujenej@news1.kr

티보플레이 4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빛나라 은수 |
| 2 | KBS | 아버지가 이상해 |
| 3 | SBS | 우리 갑순이 |
| 4 | MBC |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
| 5 | SBS | 아임소리 강남구 |
| 6 | SBS | 귓속말 |
| 7 | MBC | 당신은 너무합니다 |
| 8 | MBC | 언제나 봄날 |
| 9 | MBC | 행복은 주는 사람 |
| 10 | KBS | 다시 첫사랑 |

티보플레이 4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 애타는 로맨스 |
|---|----|---------|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 | | | |
|---|--------|---------|
| 1 | 시간위의 집 | 김윤진, 택연 |
|---|--------|---------|

'애타는 로맨스' 성훈·송지은 원나잇 시작될 아련한 눈빛 교환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성훈과 송지은이 아련한 첫 만남을 보여준다.

OCN 월화드라마 '애타는 로맨스' 측은 17일 첫 방송을 앞두고 까칠한 재벌 2세 차진욱(성훈 분)과 모태솔로 철벽녀 영양사 이유미(송지은 분)가 눈빛을 주고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극 중 성훈과 송지은은 원나잇 스탠드로 시작하는 달콤살벌한 로맨스를 그려나간다. 두 사람은 오픈카 위에 마주앉아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이어 키스까지 하고 있다.

첫만남부터 자꾸만 엮이고 부딪히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될 예정이다.

'애타는 로맨스' 관계자는 "원나잇 스탠드라는 소재로 시작하는 만큼 이 신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 소재의 설득력을 위해 배우들도 몰입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ppbn@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1000만 대한민국을 사로잡아라!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치 쇼"

THE MAYOR

특별 시민

최민식 | 광도원 | 심은경 | 문소리 | 라미란 | 류혜영 | 특별출연 이기홍
SHOWBOX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4월28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HEMAYOR-MOVIE.COM

[f FACEBOOK.COM/HITKMOVIE](https://www.facebook.com/HITKMOVIE)

신영의 세상 스케치

59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본래 빛깔 없는 햇빛은 빛의 잔치판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다

"본래 빛깔 없는 햇빛은 빛의 잔치판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좋아하는 분의 강의 시간에 들었던 한 구절이었다. 어쩌나 감명 깊었던지 그 얘기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만 하나의 나의 삶의 철학처럼 간직하게 되었다.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가슴의 절규였고 그분의 철학이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견고 몸으로 실천하던 맑고 깨끗한 한 영혼의 노래였다. 그만, 그 말간 영혼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흠뻑 젖어도 모를 그런 아름다워 슬프고 시린 노래였다. 정말,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들 투성이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 곳에는 갖가지 모양과 색깔들 그리고 어울리지 않을 듯싶은 여러 가지의 모양새들이 모여 있다. 그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리라. 내가 아무리 내 얼굴을 들여다봐도 나는 나를 자세한 이목구비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이를 통해 나를 비춰보는 것이다. 나의 모습이 비쳐 반사되어 오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알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이다. 이 또한 착각이리라. 나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서의 내 생각이야. 정말 살아갈수록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인 듯싶다. 하지만 더욱이 어려운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을 알아 가는 것이다.

바로 "이 뭣고!..."

세상이라는 큰 것을 '작은 울타리'로 좁혀 보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주변의 생활을 만들어 보자. 항상 '나'라는 관점으로 시작한다. 그러하기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자식. 이 내 것이라는 테두리 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항상 마음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늘 상비품 같은 과제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 나눴는 생각의 폭을 넓히지 못한다면 무엇이 종교이고 무엇이 사람 사는 삶의 이야기가 될까. 결국은 내 것, 내 것 챙기고 찾다 한세월이 강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지 않겠는가.

본래 색깔 없는 햇빛은 빛의 잔치판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서로가 내 것이 제일이라는 그 좁은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 때 저 멀리 어디에선가 나무그늘 뒤 움츠린 몸짓들이 말 없는 소리로 절규하고 있지 않을까. 어쩌 보면 세상살이의 한 단편이리라. 이제

'세계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더욱이 함께 바라보고 알아가고 느껴가는 더불어 같이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 문득 나 자신이 본래 빛깔 없는 햇빛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빛깔 없는 햇빛이다.

나는 오래전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로 세계인의 영적 스승. 살아있는 불자로 불리는 그 스님의 글을 읽으며 얼마나 마음이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른다. 순간 그분을 만나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조차 순간 멈춘 마음이었다고 할까.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많은 성자 중 마더 테레사의 일생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생활의 '고(苦)'를 스스로 낮아지고 죽음으로 다른 생명을 일으키는 그 힘이였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욱 거룩한 것은 종교 이전의 생명에 대한 존귀인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였다.

어느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얼마만큼의 무게로 나를 붙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그 과제는 계속되

고 있다. 아마도 계속 배움의 길목에 서서 가리라. 내 과제가 풀릴 때까지 찾아가리라. 어쩌면 그의문의 과제가 풀리는 답이 있는 곳은 결국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일 것이다. 그 속에는 나를 포함한 너와 우리이다. 사계절 속의 자연의 하모니처럼 우리도 각자의 색깔과 목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보기에 참 좋았더라!'의 참사랑과 평화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리라. 바로 함께 부딪치며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아닐까.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하는 법이다. 급하게 먹는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천천히 바라보고, 느끼고, 되어 가는 것이다.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어떠하리. 함께 가는 길이라면 외롭지 않으니 좋고 계절 따라 쉬어 가는 여유를 가지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길이라면 이것이 바로 서로 있음의 '존재'를 알고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풍요로움 속의 갈증, 조금 더 많이 알아서 조금 더 가져서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우리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음식이 모자라서 배고픈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알고 가졌기에 거기에서 오는 갈증이다.



Portrait of Heshire (The Story of Art)

한담객설閑談客說: 프로파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제 얼굴을 책임 져라. 40세 즈음에 이르는 말이다. 준엄한 경고인데 부담스럽기 그지 없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국엔 여성은 말할 것도 없다. 중년의 남자들도 성형을 받는 모양이다. 얼굴에 대한 책임을 성형으로 덮어 씌울 작정인듯 싶다. 그렇다고 크게 나무랄 것까지는 없다. 책임지겠다는 가장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눈물겨울 따름이다.

밤이 깊어 갈수록 /술기운이 익어갈수록
아득히 멀어져만 가는 학창시절이
서로의 얼굴 속에
또 하나의 자기 얼굴로 피어난다고
(목필균. 네 얼굴 속에 내가)

오래전 삼성의 전년대 이병철 회장이 재임중일적이다. 신입사원 면접때엔 관상가觀相家를 동석 시켰다 했다. 관상가의 의견이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발상發想만 재미있다. 하긴 얼굴에서는 살아온 내력이 보이는 듯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가재능을 뜨고 얼굴을 뺏히 쳐다 보지 마시라. 이상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는다. 눈썹을 보는데 옳은 인사법이라 배웠다.

프로파일. 자주 쓰는 말인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다. 프로필이 옳은 표현이며, 인물의 약력

이란 뜻이다. 한가지 덧붙인 뜻에 주목했다. 옆얼굴 모습이란 말이다. 이집트 고대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파라오의 모습 그림이 있다. 그림들은 한결같이 옆얼굴을 그렸다. 옆얼굴이 앞얼굴보다 모습을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다. 한편, 몸체는 앞모습이 옆모습보다 더 명징하게 표현한다. 그러니 그림은 목을 심하게 틀고 정면을 향하고 있다. 보기에는 어색하다. 얼굴은 옆얼굴을 그린 것이므로, 프로파일이란 말이 어울릴 것이다.

한국엔 곧 대통령 선거가 있다. 모두 나무랄 데 없는 후보자들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옆얼굴을 유심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옆얼굴(프로필)이 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했으니 말이다. 가재능을 떠도 상관없겠다. 꼼꼼히 살펴야 할 게다.

새 대통령은 과연 그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아내가 일갈—똥 할지 모르겠다. 판소리 말고, 당신 얼굴이나 먼저 책임져라.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데살로니카 2:17)

1. 프로필: (네이버) 인물의 약력. '약력', '인물 소개' 측면에서 본 얼굴 모습.
2. E.H. Gombrich, The history of art, p38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inch Segment LCD Cluster Display, AM/FM/XM radio

FWD, Automatic, HQ11289




LEASE \$69/mo.	PURCHASE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FWD, Manual, HQ11603




LEASE \$89/mo.	PURCHASE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

FWD, Automatic, HQ11525



LEASE \$119/mo.	PURCHASE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Pkg, Blindspot detection, Rear cross traffic alert, HTRAC AWD

AWD, Automatic, HQ11680




LEASE \$419/mo.	PURCHASE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

AWD, Automatic, HQ11629



LEASE \$129/mo.	PURCHASE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ers Blind Spot Mirror, 5 inch Color Touchscreen Audio, Rearview camera

FWD, Automatic, HQ11289




LEASE \$175/mo.	PURCHASE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Rearview Camera, 16"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

FWD, Automatic, HQ11830



LEASE \$129/mo.	PURCHASE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

AWD, Automatic, HQ11442



LEASE \$189/mo.	PURCHASE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을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마이클 리 (Michael Lee, 978-314-8818)
 Insurance Broker, mlee.insurance@gmail.com
 - License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 Health/Life/Annuities/Medicare/Disability/Group Benefit/Reinsurance 전문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NMLS # 1464242 / Real Estate License No. 9534498
 - Government & Conventional Residential Loan

Mortgage 1

Pre-Qualification과 Pre-Approval의 차이점

집 장만, 더 큰집을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은 구입자의 경쟁이 참으로 치열한 때입니다. 집주인들은 여러개의 오퍼를 받을테고 높은 오퍼만을 중요시 할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을 진행하며 클로징데이트를 맞추지 못하거나 용자가 나오지 않는등, 딜이 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려다가 딜이 성사되지않고 결과적으로 낭패를 보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상황을 방지하기위해 많은 집주인들은 먼저 용자를 받을 수 있는지, 클로징 날짜에 착오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제 3자의 의견 또는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바이어들과 다르게 앞서나가길 원한다면 꼭 알고 준비해야하는 부분, 바로 프리퀄리피케이션(Pre-Qualification)과 프리어프로벌(Pre-Approval)입니다.

먼저 Pre-Qualification은 모기지 브로커/오리지네이터에 의해 작성이 됩니다. 대출인이 기본적인 정보를 구두로 주거나 애플리케이션에 기입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이라는 가정 또는

조건하에 대출이 가능한 예상치를 알려 줍니다. 대출회사나 브로커에 따라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꼼꼼히 검토를 하기로 하는 브로커는 Pre-Approval과 거의 동일한 서류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이것을 Field Underwriting이라고 부릅니다. Pre-Qualification은 하루정도의 짧은 시간안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것은 언더라이팅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확실한 약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몇가지 조건하에 예상치의 용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니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re-Approval은 실제로 용자를 진행하며 필요로하는 동일한 서류를 요구하고 언더라이터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정해진 부동산만 임의로 가정을 하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Credit Report
 - Tax Return
 - Pay Stub
 - Bank Statement
- 가장 중요한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

는 정확히 신고가 된 서류들이며 대출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사실로 기록된 부분들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Pre-Approval은 이러한 서류를 기반으로 언더라이터의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약속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Pre-Qualification과는 다르게 더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준비가 길고 확실한 만큼 오퍼가 승낙된 후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기지가 나오지 않을까 마음조리는 일도 없고 준비사항에 차질이 생겨 클로징 날짜를 미뤄야하거나 용자가 불가피하게 거절되는등의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Pre-Qualification과 Pre-Approval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득, 집가격, 다운페이먼트 금액등 대출자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바탕자료가 예상이 아닌 실제금액이고 현재 부담하고있는 부채(크레딧카드 페이먼트, 자동차 용자비, 학자금 대출비 등)를 숨기지 않고 공개한다면 사실상 모기지 브로커의 Field Underwriting의 판단과 언더라이터의 심사결과는 거의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안에 가능한 Pre-Qualification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오

펴를하기 전 급히 필요로 하는 때에 기본적인 서류들과 부채에 대해 숨기지 않고 모든걸 공개한다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수입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숨어있고 다운페이를 하려고 하는 나의 돈이 용자업체의 지침서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다운페이 액수, 이자율도 단순한 숫자가 아닌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더 나은 방도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것은 모든 분의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느 한 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격의집, 동일한 액수의 다운페이먼트, 같은 금액의 월납료가 나온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다르고 더 만족스러운 딜, 예상치에 달하지 못 하는 딜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집을 찾고 오퍼를 하기전 가능한 한 미리 모기지 상담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만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6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종류임은 분명하다. 전군은 '정궁의 소생이 아닌' 즉 후궁들에게서 태어난 왕자들과, 정비(왕후)가 왕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통私通하여 낳은 아들에게 봉했던 지위이다. 법흥왕은 정비 보도와는 아들이 없다. 그의 장자 비대전군은 후궁 옥진공주의 소생이다. 그래서 왕은 비대에게 왕위를 물려 주려고 했지만 여러 귀족들과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 비대전군은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를 전군에 봉한 예이다. 그리고 세종은 생모 지소가 남편 입종이 죽은 후 맞은 계부繼夫격인 태종의 아들로 정비가 왕이 아닌 남자와 사통한 예이다. 신국神國 신라에는 신(들)을 모셔놓은 신궁神宮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혼례나 여타 길사 등의 많은 의식을 치루었다. 전군으로 봉할 때도 신궁에서 책봉의식을 치루었음이 화랑세기에 나온다. 미실이 진흥왕의 후궁으로 있을 때 낳은 왕자가 있다. 그 아들이 수종壽宗인데 태어난지 49일 만에 전군에 봉하는 의식의 기록이다. 11세 풍월주 하종전(하종은 세종과 미실 사이에서 태어났다)에 보면 "(수종을) 전군으로 봉하는 예를 수종전군의 출생 49일째에202) 거행했다. 제왕과 더불어 미실전주, 수종전군 및 공(하종)이 함께 수레를 타고 신궁에 이르러 예를 올렸다." 이렇게 전군 책봉의 의식이 치러진 장소가 바로 신궁이다. 그 예를 올린 대상은 아마도 하늘天神일 것으로

이루어 짐작된다. 그런데 전군을 봉함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정궁의 소생이 아닌 즉 후궁들에게서 태어난 왕자들' 이란 정의도 정확하지는 않다. 한 예를 보면, 지증왕과 정비 연제왕후의 아들이 원종, 입종, 진종인데, 원종은 지증왕을 이어 신라의 23대 법흥왕이 되었고, 입종은 관례에 따라 갈문왕에 봉해졌다. 하지만 삼남인 진종은 다만 전군에 봉해졌다. 후대에 와서도 제 26대 진평왕의 동생들인 김백반과 김국반 모두 갈문왕에 봉해진 것과 비교해 보면 갈문왕과 전군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연구해 보는 것도 학계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임무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김비형金鼻荆이다. 그는 진지왕과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실존 인물이지만 남아있는 사료는 거의 없다. 다만 삼국유사(권1, 기이2, 도화녀와 비형랑)에 '진지왕과 도화녀'의 전설같은 사랑이야기 속에서 모습을 들어낸다. 유부녀인 도화를 짝사랑한 진지왕은 그녀를 불러 상관을 원했지만 도화는 남편이 있다면서 목숨을 걸고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고 물으니 도화는 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진지왕은 곧 폐위되어 죽었고, 그녀의 남편도 3년 후 죽었다. 남편이 죽은지 열흘 후 죽은 진지왕이 도화의 침실을 찾아와 7일 동안 머물다 갔

다. 그리고 천지의 진동과 함께 태어난 아이가 비형이다. 진평왕에 의해 비형은 궁에서 자랐고, 매일밤 귀신들과 놀곤하였다. 왕의 명으로 귀신을 부려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귀교鬼橋)도 건설하였다. 비형의 군호가 '비형낭군'인데 왕의 서자이긴 하지만 또 다른 군호로 봉해져 있다. 201) 법흥왕은 정비 보도왕후로부터 소생이 없었다. 그래서 후궁으로 들인 옥진공주가 낳은 비대전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였지만, 딸 지소가 위화랑과 이복자매 삼엽공주 그리고 삼엽의 남편 아시공의 후원으로 적극반대하였다. 결국 부왕의 뜻을 꺾고 자신의 아들 김삼맥종을 진흥왕으로 등극시켰다. 202) 원문에는 '七七'로 나와 있는데 이종욱은 이것을 77일로 옮겼다(화랑세기 - 소나무, 1999). 그런데 김태식은 이것을 49일로 옮겼다(화랑세기 - 김영사, 2002). 김태식은 아무래도 당시는 불교적 영향으로 불교의 49재를 연상케하기에 49일로 번역하였다고 기술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전군殿君, 전군이란 무엇인가? 갈문왕과는 다른 지위와 성격으로 왕의 아들, 즉 왕자의 한

보스턴과 서버브 지역에서 ESL과 스킬 빌딩 프로그램

888.848.8260
INTERNATIONAL@CSINOW.COM



CSI 는 모든 타입의 인터내셔널 학생 등록을 환영합니다

- 미국의 대학 또는 다른 언어 학교에서 트랜스퍼 가능
- 다른 주에서 일리노이 주 학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국에서 직접 신청 가능

지금 CSI로트랜스퍼(Transfer) 하시고 \$100트랜스퍼료 할인 받으세요!

PROMO CODE
NPBK3

Use Promo Code to Apply Online CSINOW.EDU
CSINOW.EDU에서신청하실때 프로모션 코드 NPBK3를사용하십시오.

\$100 OFF*
Transfer Fee

*Promotional offer valid only for students who enroll and start classes for spring 2017 intake.

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

33 주/ 강의 + 랩

- 초급 ESL
- 중급 ESL
- 고급 ESL

\$3,9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카데미 Academic ESL

33 주/ 강의 + 랩

- 글쓰기
- 문학
- 대화

\$4,2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킬 빌딩 Skill Building

44 주/ 강의 + 학외연수

- 고객 서비스
- 전문 서비스직
- 전문 비서직
- 스몰 비즈니스 관리
- 세일 & 마케팅 전문

\$5,100 | Per*
Year

*학비에는 교과서와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SINOW.EDU

Computer Systems Institute (CSI)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licensed by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Division of Professional Licensure, Office of Private Occupational School Education. CSI is accredited by 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to award certificates. ACICS is recognized by 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For more on accreditation and why it matters for you, check out the Accreditation page at <http://www.csinow.edu/csi-advantages/accreditation/>. CSI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s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Students enrolled in ESL programs are not eligible fo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work authorization. Programs vary by loc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gram graduation rate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 Effective: 02/01/2017 v-MA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죽음, 부활 그리고 생(生)'

완연한 봄이 왔다. 봄 내음이 전해주는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가며, 생의 희망과 열기를 천천히 불어일으켜 주고있다. 겨우 내 죽었던 잎새들이 새 생명을 맞이하며 여기저기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 봄은 겨울이라는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탄생된다. 윤희주의 '서시' 를 살펴본다. 서시(序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윤희주 시인은 말해준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 마저도 마음이 괴로워지던 그였지만, 그는 마지막 잎새를 기꺼이 내던지며 자신을 죽게하는 그 모든이까지도 사랑하려했다. 그 누가 비아냥거리려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정 별처럼 빛나는 사람, 죽어도 살아있는 삶이라고 이야기 해 준다. 그의 겸손한 마음은 그가 남긴 주옥같은 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순신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하면 죽을것이고, 죽으려하면 살것이다) 처럼, '죽음과 삶' 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큰 실수를 하고 자신의 이고를 지키려 '자기방어(Ego Defence)' 를 하면 마음이 풀리지기보다 더 꼬여진다. 더 안타까운 일은 비틀어진 마음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다. 봄의 향기를 지닌 희망이 깃든 삶이라기보다 한겨울의 얼어붙은 대지속에서 꽁꽁 찰 거하는 죽음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있는 실수를 한 지연정 겸손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이고를 버리려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생(生)' 이 시작된다.

진정한 참회의 겸손은 동전을 뒤집어보는 지혜를 주면서 살아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기때문이다.

에어런 허넨더스(Aaron Hernandez)는 40 Million을 받는다는 조건의 컨트랙트를 받으며 미래가 창창했던 패트리어츠의 풋볼선수였다. 그가 두 명을 죽인 살인죄로 세상을 경악하게 하더니 종신형을 받고 수감되어있다가 목메달아 자살했다는 뉴스로 지난 주, 세상을 또 한번 놀라게했다. 코네티컷 주의 브리스틀에서 태어난 그는 갱을 가까이 하며 자라났다고 한다. '스트리트 스마트(Street Smart)'로 산전수전을 겪었고, 범법행위도 불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의 노하우를 갱 생활 속에서 찾았다고 한다. 풋볼경기에 천부적인 소질이 드러났고, 풋볼선수로 두각을 드러내었다. 플로리다대학의 과격적인 대우와 전학년 장학금을 받으며 풋볼선수로 활약하던 중, 패트리어츠 감독에게 발탁되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릴적 자리잡은 스트리트 스마트의 삶의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갱 생활에서 배운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중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 찬란했던 풋볼스타의 생의 형태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평생을 감방에서 보내는 치욕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에어런 허넨더스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진 죄를 은닉시켰다.

그는 자신의 종신형에대해 항소를 하였고 그가 죽기 5일 전, 배심원들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것이다. 물론 종신형을 아직 삭감되지 않은 상태였다. 법의 "Abatement Ab Initio," 는 항소 중 죄수가 죽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자살로 Innocent Man이 되었다.또한 그가 자살한날

은 공교롭게도, 자신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페이트리츠 NFL팀 동료들이 슈퍼볼 5관왕의 영광을 백악관에서 감축받는 날이었다. 왜, 하필 그는 그 시간에 시퍼런 시신이 되어 동료들을 더 미안하게 만들었을까?

죽음까지 몰고 갈 만큼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삶일지언정 자살행위는 가장 이기적이고 치사한 복수의 방법이다. 자살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죄의식' 이라는 족쇄를 평생 지고 살아가게 하기때문이다. 자살의 소식앞에서 마음이 아려지지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상관없는 '노무현, 최진실, 로빈 윌리엄스' 등 유명인들의 죽음을 가슴아파한다. 하물며, 잘 모르는 사람의 자살도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는데 그들의 가족의 마음은 어떠할까?

린다의 아버지는 잘 나가는 정신과의사였다. 그런 아버지가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생애 어두운 그림자로 평생 따라다니고 있다. 그녀가 아버지처럼 '자살충동' 을 느껴지자 테라피를 요청해왔다. 헨리는 자신의 집마당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아들의 기억으로 '참적' 의 고통을 지니며 살아간다. 그와 그의 아내는 구원의 가망이 없는 이 끔찍한 형벌때문에 심한 우울증으로 생을 이어간다. 그렇게 아들을 잃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자신이 정말 혐오스럽다고 한다. 린다의 아버지는 자살로 세상을 두고 복수했고 헨리의 아들은 부모를 두고 철저히 복수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족들은 들은 억누르는 죄의식으로 얼음처럼 꽁꽁 얼어버린 마음을 부둥켜 안고 산다. 가끔씩 이 절망적이고 치욕적인 삶을 청산하고 싶은 충동이 온다고 호소한다.

자식 잃고 참적의 고통속에서 종교의 힘으로 생을 일으킨 작가가 있다. 그분은 '고 박

완서'작가 이시다. 그녀는 병 한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이었던 의사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녀는 신에게 질문한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내 아들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 죽음 후에도 만남이 있을까?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그 애의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신이 있거나 있는 것일까? 인간의 기도나 선행과는 상관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치 앞도 못 내다보게 눈을 가려놓고 그 운명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신이라면 있으니까나아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깨달음과 함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다. 에어런 허넨더스가 어떠한 형태이든 진정한 참회를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생과죽음의 동전을 뒤집어 보았다면 그는 분명코 자살이 아닌 자신이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의 무거운 족쇄를 지니고 살아가지 않게 해 주었을 것이다. 그의 생이 맑고 향기로운 봄 내음을 지니며 그의 부끄러운 오점이 지워져 갔을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주어서는 형벌을 주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영업 시간

M-F: 8:00~5:00
SAT: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Bmw,Mini,Lexus,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Acura,Audi,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6년 Auto body work!!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당신의 가장 현명한 선택

오엘 성형외과

성형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고객맞춤형 시술&수술 진행

- **토털 케어 시스템** 오엘성형외과에 오신 시점부터 상담, 수술계획, 마취, 수술, 회복관리까지 공평한 상담, 정확한 진단으로 만족도 높은 진료가 가능합니다.
- **안전함이 최우선인 진료** 대리수술 NCR 대표원장이 직접 수술하는 정직한 진료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오엘의 약속입니다.
- **새로운 수술법 연구**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렌드린 미용 성형의 최신 정보를 받아들여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품격 있는 의료서비스** 병원과 환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생고객서비스를 통해 모든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직한 진료** 개별적인 관찰과 탐구를 통해 개인별 맞춤 디자인과 치료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엘 성형외과 휴람이벤트]

눈·코	성안검 170만원 → 150만원	이물질제거	입술(약제) 300만원 → 240만원
	눈썹허가상 170만원 → 150만원		미간 300만원 → 240만원
	하안검 170만원 → 150만원		부분 300만원 → 240만원
	하안검+눈썹지방재배치 250만원 → 170만원		코 300만원 → 240만원
	명품 코(귀연골+실리콘) 240만원 → 220만원		팔자배 400만원 → 320만원
안면거상	플래이스 리프팅 800만원 → 500만원	이마 400만원 → 320만원	
	관자+염분+목리프팅 800만원 → 600만원	가슴 800만원 → 640만원	

모발이식

- 여성 헤어라인 1,000모 → 100만원
- 여성 헤어라인 2,000모 → 200만원
- 남성 모발이식 3,000모 → 350만원
- 남성 모발이식 4,000모 → 450만원
- 남성 모발이식 5,000모 → 550만원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미용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원 대표원장

- [학력]
- (현) 오엘성형외과 대표원장
 - Henry Hindle Middle School
 - Lawrence Sheriff Grammar school, Rugby, England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 [경력]
- 삼성의료원, 삼성제일병원 인턴 수료
 - Matsuyama Cosmetic Surgery Center 부원장 역임
 - 한일병원 화상외과 연구소, 성형외과 과장 역임
 - Cheng Gung 병원 두개안면기형 연수
 - Beverley Hills, Camden Surgery Center 연수
 - Juve Aesthetic Surgery Center 대표원장 역임
 - 아름다운 성형외과 원장 역임



해외의료사업팀장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82)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야 하나?

2017년 4월 13일 월스트리트 신문 1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덱스 펀드가 지난 15년 동안에도 수익률이 뮤추얼 펀드보다 높았다. (Indexes Beat Stock Pickers Even Over 15 Years, April 13, 2017, WSJ)” 라는 내용입니다.

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지수(Index)를 따라서 즉 펀드 매니저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Passive Investment)로 구분해서도 말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회사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선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유망하다고 전망하는 회사 주

식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의해서 이미 선정되어 있으므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S&P 500 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500개 회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을 회사만 선정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뮤추얼 펀드 투자입니다. 문득 생각하면 정보력도 많고 투자 돈도 풍부한 뮤추얼 펀드가 회사를 잘 선정해서 투자하기에 수익률도 인덱스 펀드보다 분명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제 통계가 보여줍니다.

과거 5년 동안 대기업에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단 12%였다는 결과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덱스 펀드 수

익률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가 무려 88% 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5년에만 있었던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5% 그리고 15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무려 92% 라는 사실을 월스트리트 신문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2007년부터 뮤추얼 펀드에서 빠져나온 돈의 액수가 \$1.2 Trillion이 되며 거의 같은 액수인 \$1.1 Trillion이 인덱스 펀드로 투자되었습니다.

* 참고로 \$1 Trillion은 \$1,000 Billion이며 \$1 Billion은 \$1,000 Million이라는 큰돈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도와주는 재정설계사 대부분은 고객의 자산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높을 확률

이 희박한 데 재정설계사는 그 많은 뮤추얼 펀드에서 어떤 펀드가 주식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선별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 대부분은 재정설계사가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하기에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며 결과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정신이 나간 거와 같다. (One definition of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필자 회사의 모든 고객(Client)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ETF 종목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평균 투자 경비가 단 0.1%이기에 주식시장에서 나온 수익률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덱스 펀드나 ETF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앤젤라 엄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2017년 정시지원 합격: 4월의 회고”

대학입학상담 전문가로서 필자는 특별히 4월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물론 4월 1일에는 자신이 꿈꾸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필자의 장기계약 상담 학생들과 축하를 나누는 기쁨도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담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기지원을 통해 합격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축하의 시간은 주로 12월, 즉 크리스마스 때이다. 필자가 4월을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는 학생들로부터 수많은 슬픈 사연의 전화와 실망한 사연의 이메일들이 이때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학교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고 난 뒤 간절한 마음에서 필자의 도움과 조언을 구한다. 실망한 학부모들로부터도 연락이 오는데, 왜 학점이 완벽하고, 시험 성적도 완벽한 자기 아이가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으로부터 불합격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은 불합격한 이유와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기 위해 필자에게 이때 처음 전화를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때는 이미 필자가 도와주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이처럼 불합격을 당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전문적인 듯한” (pseudo-professional) 상담, 즉 아마추어 진학상담사로부터 상담을 어느 정도 받았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대학 경쟁률이 역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다 보니 대학 진학상담 사업이 대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이 러다 보니 누구나 자신들이 대학진학상담의 “전문가” (Experts)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절한 학생들과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경쟁력을 갖추어 주고 싶은 부모들의 초조함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들이 하버드에 입학 하면 그 엄마가 갑자기 “이웃에 사는 전문가” 가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학의 비결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엄마로부터 해결책과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 하버드와 예일에 재학중인 학부모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입학 전문가” 로 선전한다. 이들은 평생에 오직 한 번, 그것도 자신의 대입 지원서를 작성해 보았을 뿐인데도 말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학 전문가”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자신의 딸이 스탠퍼드에 합격한 모든 엄마들이 갑자기 합격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도 자신이 왜 합격했는지를 다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입학 사정 세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실제로 내부에서 어떻게 합격 결정

이 내려지는지 알지 못하며, 미국의 입학 사정 과정을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교육 철학과 가치에 대해 무지하다. 더구나 입학사정관들 (Admissions Officers, AO’s)이 자신들의 대학을 위해 학생들을 뽑을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매일 혹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지극히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힘들다. 필자는 하버드와 MIT에서 수년에 걸친 체험 실습을 통해 입학사정관 훈련을 받았다. 수천 장의 지원서를 읽고, 셀 수 없는 지원자들을 인터뷰했으며, 각 지원자들을 놓고 끝이 없을 정도로 오래 토론을 한 다음,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고통스런 결정을 내리곤 했다. 이런 경험은 하룻밤 사이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대학 지원을 하는 자녀들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 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사람은 똑같은 수 없다는 진리 속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흉내 내거나,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똑같이 하고, 같은 수업을 택하거나, 같은 시험 점수를 얻고, 같은 과외활동을 해서 같은 대학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그냥 불가능하다. 모든 학생은 각자 다르다: 인성, 성숙도, 가정 배경, 기질과 취향, 장점과 약점, 목표와 꿈 등이 다르다.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학생도 지속적으로 다

른 학생과 비교되고 다른 학생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재앙적 처방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임에도, 대학 진학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비 리그에 합격한 다른 학생이 한 것과 똑같이 자기 아이에게 시키겠다고 우기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필자는 놀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도 해야 한다는 부모들도 많다.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필자의 조언을 꼭 새겨 들길 바란다: 첫째,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를 주의하라. 여러분의 자녀는 일생에 한 번뿐인 대학 지원을 앞두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인 자녀의 멘토나 조언자를 구하고 있다면, 정말로 대학 입학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선생이나 멘토를 찾아야 한다. 즉 입학 사정 세계 내부를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 스스로 “전문가” 를 자처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자녀를 맡겨서는 안 된다. 둘째,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처럼 되도록 비교하고 강요하지 말라. 누구나 자신만의 정체성과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리와 열정을 찾으며, 자신만의 성공의 길을 모색해 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시기 바란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2)
-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방법**

이번 주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한국의 비거주자)의 한국의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미조세조약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각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의 한국 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한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세법에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①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종합과세)와 ②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종합과세'란 ①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한국 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②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분리과세'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국내 원천소득별(예를 들면 이자, 배당, 로열티 등)로 따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것으로,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은행이자는 은행이 이자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조세조약이나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비거주자는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한국의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 이외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즉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적용할 수 없는 등 거주자에 비해 몇 가지 불리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임대수입과 간주임대료

총임대소득에는 매월 받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간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

A와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는 임대사업자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의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B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A와 B간에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B의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text{간주임대료} = ((\text{임대보증금적수} - \text{토지를 제외한 건설비상당액적수}) \times 1/365 \times \text{이자율} - \text{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입})$$

위의 기본 논리는 B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적어도 은행이자율만큼의 소득은 얻었을 것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임대보증금을 통해 최소한 은행이자율만큼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임대수입에 포함될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필요경비와 경비율

필요경비란 영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상적이고 필연적인 비용(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이자, 각종 공과금, 세금, 각종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이 있습니다(미국의 Schedule E와 동일한 개념임).

이러한 필요경비(비용)는 원칙적으로 실제장부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장부가 없는 경우 수입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를 '경비율'라 합니다. 이러한 경비율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벌칙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장부를 기록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2.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Resident Alien(영주권자,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충족한 자)은 미국의 세금신고시 한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신고시 납세자는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을 'Schedule E'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의 세법에 의해 기록된 임대수입 및 관련비용은 미국의 세법에 맞게 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세법에 의해 소득에 포함된 간주임대료는 미국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며, 반대로 한국의 세법에서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선수임대료는 미국의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의 경우도 미국의 세법에 맞게 수정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또는 납부할 세금)은 미국세금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 5월은 한국의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i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4월 마지막주)

● H-1B 배우자 노동허가

H-1B 배우자들(H-4)은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H-1B 배우자라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1B 배우자를 위해 신청된 I-140이 승인된 경우(I-485 순서가 아직 안 된 경우)

- H-1B 배우자가 AC21을 통해 (H-1B 만료 365일 이전에 PERM이 신청된 경우 등) 신분 연장이 된 경우

영주권 심사의 적체가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부분에 대한 심사에 대해 많은 실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국 직원들의 심사조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폭주되는 신청서들 때문에 심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된 듯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첨부하시고 되도록 심사하는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들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보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현 H-4 신분에 대한 증명 (사본)

● H-4 비자 스탬프, I-94, 신분변경 승인서 등

- 여권 등 정부발행 ID (사본)

●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 (Biographic Page), 운전면허증 또는 이전 EAD

- 출생증명서

● 최근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출생증명서는 출생기록과 부모님을 기록하게 되어있지만 한국의 기본증명서는 출생기록만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모님의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결혼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결혼 증명서 (공증된 영문번역본 첨부)

- I-140 승인서 등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증거서류 (사본)

● PERM 이 신청됐다는 증거서류

● I-140 승인서류 등 신청날짜 등에 논란

색으로 하이라이트 하셔서 이 신청들이 H-1B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365일 이전에 신청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진 2장 (반드시 사진 2장 잊지마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90일안에 EAD를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심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일이 됐을 때 'Priority Processing(우선처리)' 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현 이민 상황과 입출입 기록, 언제 서류가 접수됐는지 등에 대해 이민국이 다 알아서 확인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부터 열가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자료와 증거들은 다 포함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H-1B Update

신청접수 5일만인 지난 4월 7일 올 쿼터에 해당되는 H-1B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로써 5년 연속 접수 5일만에 모든 쿼터가 소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만에 처음으로 신청서 숫자가 전년도보다 줄긴 했지만 올해도 총 19만 9천여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 쿼터에 맞는 숫자의 신청서가 선별됩니다. 추첨완료에 대한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접수증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는 것으로 보서는 추첨은 이미 다 완료된 듯 합니다. 현재로선 신청료로 보낸 체크가 지불됐는지 확인하는 것 밖에는 확실히 추첨에 통과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H 비자와 관련하여 "Buy America, Hire America"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4개 부처장(노동부, 국토안보부 포함)들로 하여금 H 비자가 'Most-Skilled or Highest Paid' 직종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어떤 방법이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 미국에는 총 2백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다고 합니다. 한해 H 비자로 미국의 일자리를 뺏을 수 (?) 있는 숫자는 최대 8만 5천개 입니다. 약 4.25%입니다. 많다면 많은 숫자겠네요.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한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이민국의 H-1B 방문 심사 강화, 예사롭지 않다

최근 H-1B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긴장시키는 이민국의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이민국이 집중 방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이어 이민국은 이메일 하나로 H-1B 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 하였습니다. 이 이메일로 법적 피해를 본 H-1B직원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필요 없이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이 이메일로 접수되는 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방문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일련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민국은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H-1B 위법 사항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하지 않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미국 직원과 H-1B 직원 사이에 임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거나, H-1B직원이 청원서의 내용과 달리 단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나, H-1B 직원이 청원서나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적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 H-1B 직원

이 이민국이나 노동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러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서류신고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고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이전에는 H-1B 소지자의 경우 출국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어 즉시 출국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틈도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서류 신고가 아닌 이메일 접수도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올 1월부터 H-1B도 60일의 출국유예기간(Grace Period)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사유로 H-1B 직원이 부당 처우 혹은 해고를 당했는데 출국으로 제 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해당 회사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를 본 H-1B 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미국인 우선주의" 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 방향대로 비이민취업비자(H-1B)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기업들의 H-1B 위법 상황을 옹호

하고자 함도 아니며 부당 처우를 당한 직원들의 신고도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민국이 오해 할 소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당한 개인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절차 이후 발생할 일들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H-1B 직원을 청원서에 적어놓은 사업장이 아닌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장기 출장을 보내고 있다면 이민법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출장" 이고 어떤 상황이 "근무지 변경"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자신이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H-1B 청원서가 들어갔고 이민국에 위반 사항만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국에도 함께 신고를 하여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요청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민 신분(Status)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고민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겠지만 많은

경우 법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H-1B 대안, 송동호 종합로펌과 상의하세요!

H-1B가 다가가 아니다!

O 비자

E 비자

P 비자

영주권

H-3

NIW

매력녀, 그래픽 디자이너 윤아
차도남, 공인회계사 공유
핫한 인스타그램 스타, 패션 디자이너 소미
훈남, 건축 디자이너 현빈

모두 H-1B 추첨 탈락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H-1B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개인 우편서비스(프랜차이즈 아님) 연매상 \$550,000
100% 소유자 부재 중 경영, 높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풀러커 연매상 \$1M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8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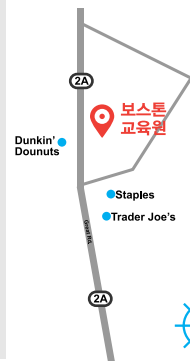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Special 섬머 프로그램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믿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